

석사학위논문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의
原文書誌學的 研究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 신 관 호

석사학위논문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의
原文書誌學的 研究

지도교수 옥 영 정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 신 관 호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의
原文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 11. 3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 신 관 호

이 논문을 신관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분석	2
3. 연구방법	4
II. 조선시대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과 수록방식	6
1. 일기의 유형	6
2. 일기의 수록 방식	11
III.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 내용 비교	20
1.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	20
2. 『眉巖先生集』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내용	28
IV. 문집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편집양상	41
1. 편집상의 오류	42
2.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45
3. 기사의 재구성	51
4. 내용 추가	55

V. 결론	62
참고문헌	64
외국어초록	67
부 록	70

표 목 차

표 II-1. 개인일기의 유형분포	7
표 II-2. 문집수록 일기의 유형분포	8
표 III-1. 『眉巖日記』의 기록일자	22
표 III-2. 『眉巖先生集』의 구성	25
표 III-3. 『眉巖先生集』의 수록일기 기록일자	26

그림 목 차

그림 II-1. 『湖陰雜稿』에 수록된 일기	11
그림 II-2. 기사발췌형식의 일기 - 1	12
그림 II-3. 기사발췌형식의 일기 - 2	13
그림 II-4. 기사발췌형식의 일기 - 3	14
그림 II-5. 서술형식의 일기 - 1	15
그림 II-6. 서술형식의 일기 - 2	16
그림 II-7. 일기형식의 일기 - 1	17
그림 II-8. 일기형식의 일기 - 2	18
그림 III-1. 『眉巖日記』	21
그림 III-2. 『眉巖先生集』	23
그림 III-3. 『眉巖先生集』 卷首面	19
그림 IV-1. 문집 수록 시 낱짜 형식	41
그림 IV-2. 편집상의 오류 - 1	43
그림 IV-3. 편집상의 오류 - 2	44
그림 IV-4. 글자 · 문자 수정 및 삭제 - 1	46
그림 IV-5. 글자 · 문자 수정 및 삭제 - 2	47
그림 IV-6. 글자 · 문자 수정 및 삭제 - 3	48
그림 IV-7. 글자 · 문자 수정 및 삭제 - 4	49
그림 IV-8. 글자 · 문자 수정 및 삭제 - 5	51
그림 IV-9. 기사의 재구성 - 1	53
그림 IV-10. 기사의 재구성 - 2	55
그림 IV-11. 내용 추가 - 1	57
그림 IV-12. 내용 추가 - 2	58
그림 IV-13. 내용 추가 - 3	59

국문초록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의 原文書誌學的 研究

신관호

본 논문은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의 수록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희춘의 『眉巖日記』와 그의 문집 『眉巖先生集』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문집은 저자의 작품과 업적을 모아서 기록하여 자신의 조상을 선양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자료이다. 문집에 수록되는 자료들은 저자의 가치관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詩, 文 등이 수록된다.

반면에 일기는 개인의 하루하루 일상을 시간의 순서대로 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이다. 당시의 생활상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일기는 『조선왕조실록』, 문집 등 2, 3차 자료를 만들 때 주요 사료로 이용되었다. 이 가운데 일기를 사료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문집에 수록되는 것이다. 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것은 16세기부터 사대부들 사이에서 개인일기를 남기는 것이 유행하면서 저자의 하나의 저술로 수록되게 된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문집을 망라한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문집들 가운데 ‘日記’나 ‘日錄’이라는 제목으로 날짜에 따라 수록된 일기를 선별한 결과 154종 248건이 있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를 개인일기의 유형을 참고하여 분류하면 수록된 양이 많은 순서대로 정사일기, 기행일기, 강학일기, 사건일기, 사행일기, 전쟁일기, 생활일기로 나눌 수 있다. 정사일기와 기행일기가 많은 이유는 관직생활이 저자의 업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며, 산수를 둘러보며 풍경을 보고 느낀 점을 작품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생활일기는 문집에 수록될 때 주제별로 선별되기 때문에 수록되는 양이 적다.

또한, 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기록에서 문집의 저자에 관한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는 기사발췌형식, 날짜와 내용을 적었지만 각 기사의 구분 없이 적은 서술형식, 현재의 일기와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된 일기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의 편집양상을 보기위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문집에도 많은 양이 수록되어 있는 眉巖 柳希春의 일기인 『眉巖日記』와 그의 문집인 『眉巖先

生集』을 대상으로 문집에 수록된 내용과 편집양상을 비교하였다.

『眉巖先生集』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내용은 유희춘의 관직생활과 저술활동, 개인적인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은 관직생활과 관련된 기사로 임금의 전교, 강론의 참석, 조보의 내용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저술활동은 유희춘이 지은 시, 서책의 저술 및 교정 등을 위주로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록은 개인의 감정을 적은 내용, 날씨에 관한 내용, 자신의 이동경로 등이 수록되었으며 개인적인 내용은 한 달에 10여 건 정도의 내용이 수록될 정도로 적었다.

일기의 내용을 수록할 때 변화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편집과정 상에 표기를 잘못된 편집의 오류로 14건의 기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문집에 수록할 내용을 선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글자·문장의 수정 및 삭제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자나 문장을 문집에 수록하는 내용에 맞게 유의어를 쓰거나 요약 및 설명 등이 행해졌다. 세 번째는 편집한 글자와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21건의 기사가 있었다. 재구성은 일기에 기록된 시간의 순서가 아닌 내용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용을 수록하는 우선순위는 관직생활→저술활동→개인적인 활동에 기록으로 하루의 기사에서도 나뉘었다. 마지막으로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도 7건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미암일기』와 『미암선생집』의 원문비교를 통해 실제로 문집에 수록된 일기와 일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문집을 편찬할 때 내용을 편집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면 조선시대 문집에 일기를 수록할 때 어떠한 점을 중시하였으며, 배제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편집양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文集, 日記, 柳希春, 『眉巖日記』, 『眉巖先生集』, 원문서지학, 원문비교

I. 서론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문집에 수록된 여러 일기 가운데 眉巖 柳希春의 『眉巖日記』와 문집인 『眉巖先生集』을 비교하여 일기의 문집 수록 양상을 알아보고자하는 연구이다.

문집은 四部 중 集部의 別集에 속한다. 개인이 쓴 글 중에서 經·史·子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¹⁾ 개인의 사상과 행적,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기본 자료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 문학, 사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²⁾ 또한, 후손이나 제자들이 선조나 스승의 업적과 저작을 기리기 위하여 저자의 작품들을 모아서 편찬·간행되었다.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경제력, 인력,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문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저자의 공적 위치가 높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저자가 생활하던 공간에서 중요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의 구성은 詩·書·記·雜著·附錄·後錄 등으로 문집별 저자의 작품에 맞게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記·雜著·附錄 또는 일기의 이름을 단독적으로 구성하여 저자의 일기나 다른 사람의 일기에 기록된 저자의 기사를 수록한다.

일기는 문집과는 반대로 자신의 하루하루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은 것이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기를 문집에 수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사상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보아야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 문집, 실록 등 2, 3차 사료를 구성할 때 일기는 이전 단계의 사료적 성격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일기의 유형은 생활일기, 사환일기, 사행일기, 전쟁일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현대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기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개인의 일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특정한 주제에 집중되는 기사가 아닌 정사, 학문, 문학 등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 이런 복합적인 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암일기』이다. 『미암일기』는 미암 유희춘이 1567년(명종 22) 유배에서 풀려난 뒤부터 1577년(선조 10) 세상을 떠나는 해까지 10년의 일상을 적은 방대한 양을 가진 생활일기이다. 이 일기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사료로 사용되었을 만큼 그 시대를 자세하

1) 韓永愚, 「『韓國文集叢刊』事業의 評價와 意義」, 『민족문화』18, 한국고전번역원, 1995, 55쪽.

2)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104쪽.

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미암일기』가 『미암선생집』에 수록되는 부분은 다른 문집들에 수록된 일기들과는 다르게 총 21권 가운데 14권을 차지할 만큼 문집에 수록되는 중요도가 높아 생활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경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암선생집』과 『미암일기』를 비교·분석하여 문집에 수록되는 중점적인 내용과 생활일기를 문집으로 옮길 때 편집양상을 분석한다면 종합적으로 사적인 기록물인 생활일기를 공적인 기록물인 문집에 수록할 때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문집에 수록할 때의 변화양상을 본다면 일기의 기록 사료적 가치와 문집에 일기를 수록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문집편찬과정의 일부분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문집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문집을 선택하여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한문학에서는 문집 번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서지학에서는 문집의 판본 분석에 관한 연구와 편찬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문집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는 詩·書 등을 분석하여 저자의 사상을 파악하거나 특정한 하나의 형식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³⁾

반면 일기를 연구하는 것은 적은 편이다. 일기는 관찰사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⁴⁾ 일기에 대한 연구는 먼저 정구복⁵⁾, 염정섭⁶⁾, 황위주⁷⁾가 각자의 일기목록을 제시하였다. 정구복은 일기를 내용에 따라 관료생활일기, 농가일기 등의 생활일기와 사행일기, 표류일기, 여행일기, 전쟁일기 등의 특수일기로 나누고 부록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일기, 문집에 실린 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로 구분하여 목록을 제시하였다. 염정섭은 생활일기, 사환일기, 사행일기, 전란일기, 관청일기, 여행일기, 사건일기로 분류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

3) 정진영, 「조선후기 ‘간찰’자료의 존재형태-문집 ‘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제102집, 부산경남사학회, 2017.

이형유, 「국증본 梅山集 중 詩賦類의 구성 및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79집, 한국서지학회, 2019.

박형우, 「魯西遺稿 수록 尹宣舉 簡札 연구 : 일본 간찰과 노서유고 수록 간찰 비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4) 鄭求福,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5) 鄭求福, 위의 글.

6)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제24집, 한국역사연구회, 1997.

7)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원회에 소장된 일기목록을 제시하였다. 황위주는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 지방의 관청을 비롯하여 각종단체와 개인이 작성한 일기류 자료 약 1600여 종의 실상을 소장기관, 작성주체, 기록시기, 주요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위의 연구들로 인해 현전하는 자료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후의 일기 연구는 하나의 일기를 정하여 내용을 분석하거나 한 주제에 대하여 일기의 기록을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연구는 박현순, 김미선의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박현순은 문집의 일기 기록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일기’와 ‘일록’은 단일한 자료군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자료로서 활용성은 개인의 체험과 인식을 통해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른 방식의 역사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다음으로 김미선은 호남문집을 조사하면서 부록에 수록된 일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남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은 타인의 일기 내에서 저자가 등장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 다른 사람의 일기가 짧은 경우 저자가 등장한 타인의 일기 전체를 수록한 것, 저자의 행적을 후손이나 후학들이 일기 형식을 빌려 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 나누었다.⁹⁾ 이후 연구는 문집 부록에서 더 확장하여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수록된 일기 총 562편을 시기별 현황과 가치를 밝혔다. 14~15세기에 처음 나타나 확장되다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이루고 점차 사라져갔다. 또한,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내용별로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로 분류하였다.¹⁰⁾

본고의 주요대상인 『미암일기』의 연구는 송재용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송재용은 보물 제260호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인 『미암일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¹¹⁾ 종합적 고찰이후 세분화된 주제를 잡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¹²⁾ 송재용 이후로 문학, 역사,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활용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적¹³⁾, 관직생활¹⁴⁾, 생활문화¹⁵⁾, 교육문

8)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9)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10)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11) 송재용, 「『眉巖日記』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12) 송재용, 「『眉巖日記』의 글쓰기 방식 일고찰」, 『東洋古典研究』30, 동양고전학회, 2008.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教育 및 科擧制度的 실상」, 『漢字 漢文教育』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서적 및 출판 관련 사항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13) 이연순, 「『眉巖日記』의 저술배경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화16), 여성문화17), 서적활동18) 등 세분화된 주제로 연구되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미암일기』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16세기의 생활을 증명할 때 증거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록내용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만 『미암일기』를 『미암선생집』과 직접적으로 원문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3. 연구방법

문집의 간행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문집을 계획적으로 수집·해제한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문집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화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내

2008.

이연순, 「眉巖 柳希春의 日記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김대현, 「『眉巖日記』에 나타난 退溪관련 기사에 대한 고찰」, 『퇴계논학집』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이연순,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이연순, 「『眉巖日記』에 나타난 인물평가 방식」, 『東洋古典研究』38, 동양고전학회, 2010.

이연순,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不遷怒’의 실천 지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44, 이화어문학회, 2018.

14) 정영민, 「眉巖 柳希春의 經筵活動 研究: 『眉巖日記』에 나타난 經筵活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9.

15) 윤소정,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최유정, 「『미암일기』를 통해서 본 16세기 양반가의 사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7.

배수경, 「16세기 일기자료에 나타난 양반가의 가정생활 비교연구: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8.

홍세영, 「『眉巖日記』의 의학 기록 연구」, 『民族文化』36, 한국고전번역원, 2011.

이민주, 「복식 장만과 관리를 통한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朝鮮時代史學報』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이왕기·김석희,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가옥의 건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연합논문집』18,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박찬희, 「16세기 兩班 兩班 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20.

16) 최혜진, 「조선중기 士族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8.

17)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庭運營과 生活: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

18) 裴賢淑, 「柳希春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세운 개인일기의 분류기준과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유형화한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문집에 어떠한 형식으로 수록되는지 살펴본다.

유형을 나눈 뒤에는 여러 종류의 수록 일기 가운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기를 수록한 문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특정 사건에 집중되어 기록되지 않았고 하루하루의 생활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기본자료로 분석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미암일기』는 다양한 일상을 기록한 일기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암일기』는 10년 동안의 생활을 적은 대표적인 생활기록일 뿐만 아니라 『미암선생집』이라는 유희춘의 문집에도 수록되었으므로 일기와 문집을 비교 연구하는 표본으로 적합하다.

대상으로 정한 『미암일기』와 『미암선생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일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미암일기』가 문집 수록될 때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암일기』와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일기를 원문서지학 방법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사 하나하나를 비교하다보면 문집에 수록될 때는 어떠한 편집양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조선시대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과 수록방식

1. 일기의 유형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일기의 유형을 살펴볼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개인일기를 바탕으로 수정·편집되어 문집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개인일기는 하루하루 날짜를 적고 그 날의 사건과 필자의 감정을 적는 필사본 형태로 주로 남아있다. 일기의 분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적는 방식이 아니라 필자가 하루하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글로 하루의 기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우경은 조선후기 일기를 대상으로 문학적으로 연구하여 전쟁일기, 궁중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 표류기로 분류하였다.¹⁹⁾ 정구복은 기록된 글에 따라 한문일기와 국문일기로 나누고, 기록된 기간이나 대상에 따라 생활일기와 특수일기로 분류하였다.²⁰⁾ 다음으로 정하영은 소재에 따라서 여행일기, 전란일기, 궁중일기로 분류하였고²¹⁾, 염정섭은 저자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생활일기, 사환일기, 사행일기, 전란일기, 관청일기, 여행일기, 사건일기 등으로 분류하였다.²²⁾

2000년대 들어서는 황위주가 사환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전란일기, 사건견문일기, 유배일기, 강학·독서일기, 고종·문상일기, 종합생활일기, 기타일기로 분류하였고²³⁾, 최은주는 고종상장례일기, 독서강학일기, 사건견문일기, 전란일기, 사행일기, 기행일기, 유배일기, 사환일기, 종합생활일기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²⁴⁾

2010년대에는 한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일기로 한정하여 기타사건일기, 전란일기, 일상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로 분류하였고²⁵⁾, 심경호는 기록 소재에 초점을 두어 국내편력일기, 이역기행일기·표해록·피로일기, 자서일기, 유

19)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20) 정구복, 위의 글, 1996, 8쪽

21) 정하영, 「조선조 '일기' 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제1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2쪽

22) 염정섭, 위의 글, 230쪽

23)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84쪽

24)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09,

25) 한지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기류의 현황과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3』, 국립중앙도서관, 2011, 289~302쪽

배일기, 사건일기, 진중일기, 장정일기, 사환일기, 경연관일기, 간역일기·상소일기, 천주교순교일기 등 11가지로 분류하였고²⁶⁾, 허경진은 여행일기, 사직일기, 유배일기, 사건일기, 전쟁일기, 학업일기, 의례일기, 생활일기로 분류하였다.²⁷⁾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국적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개인일기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장 포함 129곳에 1430건을 가지고 사환일기, 사행일기, 기행일기, 전쟁일기, 생활일기로 분류하였다. 유형화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⁸⁾

유형	사환일기	사행일기	생활일기	전쟁일기	기행일기
분포도	26%	24%	22%	17%	11%

표 II-1 개인일기의 유형분포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유형은 관직생활과 관련된 일기가 많다. 그 이유는 일기의 저자가 지금의 일반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이 유형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일기는 저자의 일상생활을 적다보니 전쟁일기나 기행일기 같은 단편적인 사건의 비중이 낮은 것이다. 단편적인 사건을 적은 것이 아닌 여러 사건이 기록된 경우는 저자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생활일기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이 최근까지 개인일기의 유형분류는 연구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1차 자료로 된 별도의 서적을 대상으로 삼아 내용에 따른 유형 분류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는 1차적 자료형태의 일기 유형은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2차적 자료로 활용된 일기의 유형분류는 연구되지 않았다.

일기가 2차적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문집에 수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집을 망라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만든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문집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한국문집총간』은 民族文化推進會가 1986년부터 10개년 200책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1992년 계획수정으로 20개년 490책으로 연장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주요 古典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標點, 解題, 索引의 정리 과정을 거쳐 발간하여 학계 및 일반인에게 널리 제공함으로써 국학연구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國譯을 충실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²⁹⁾

26) 심경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87~110쪽

27) 허경진,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의 토론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161~162쪽

28) 이종숙, 「조선시대 개인일기 학술조사 종합고찰」,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6쪽

그 결과 『한국문집총간』의 정편은 인물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1988년~2005년까지 350책 663종의 문집이 수록되었고, 속편은 정편에서 속하지 못하고 보류된 문집과 이후에 조사한 문집 중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집을 저자의 순수저작 비중, 판본의 종류, 간행된 시기, 책의 분량 등으로 선정하여 2005년~2012년까지 150책 596종으로 완간되었다.³⁰⁾

이렇게 『한국문집총간』의 편찬은 조선시대 문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대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집총간』의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대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문집총간』의 문집 1259종 가운데 ‘日記’나 ‘日錄’이면서 날짜별 기사가 기록된 일기 154종 248건을 대상으로 삼아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는 개인일기를 문집에 수록한 것이다. 개인일기의 유형은 대부분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내용별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1차적 자료로 활용하거나 하나의 기사만을 발췌한 일기를 제외한 나머지로 내용별 분류를 하면 정사일기, 기행일기, 강학일기, 사행일기, 사건일기, 생활일기, 전쟁일기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정사	기행	강학	사건	사행	전쟁	생활	총
건	46	45	25	20	16	15	13	180

표 II-2 문집수록 일기의 유형분포

정사일기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기록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누명을 쓰거나 죄를 지어 유배를 가서 생활하는 내용까지이다. 정사일기를 세분화해보면 사환, 유배, 경연·서연일기로 나눌 수 있다. 사환일기는 관직에 있는 인물이 관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³¹⁾ 초기 관직생활부터 현감, 관찰사 등 지방관직 생활 등 모든 관직생활과 관련된 일상을 보여준다. 유배일기는 유배경위, 유배지로의 여정, 유배지 생활, 유배에서 풀려나는 과정들을 적은 일기이다.³²⁾ 경연·서연일기는 왕에게 유학의 경서와 역사를 가르치던 경연(經筵)과 왕세자에게 강론하는 서연(書筵)에 대한 준비와 경연과 서연에 나아가 강학하

29) 韓永愚, 위의 글, 64쪽.

30) 박재영, 「고전적 정리의 측면에서 본 『한국문집총간』 편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민족문화』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260~263쪽.

31) 박영호, 「朝鮮時代 仕宦日記 研究 - 朴來謙의 『西繡日記』를 中心으로 -」,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2010, 27쪽.

32) 최은주, 위의 글, 14쪽.

는 과정을 적은 일기이다. 경연·서연일기를 사환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보다는 임금과 세자의 강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관직생활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정사일기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았던 만큼 문집에 수록된 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기행(紀行)은 여행 중에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기행일기는 여행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행은 거주지를 떠나 돌아다니는 일을 의미하지만 일기 속에는 여행이 아닌 다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행일기는 특정한 내용이 독보적으로 많거나 여행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다른 내용이 중심인 것은 제외하고 여정을 떠나 여정에서 본 것들에 대한 내용이 중심일 경우이다.³³⁾ 또한, 지명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기록되어 산수를 여행하는 유산기(遊山記)와 특정 지역을 유람하는 답사기(踏查記)가 있다.³⁴⁾

문집에 수록된 기행일기는 유람하면서 자신의 느낀 점을 작품으로 기록해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사일기 다음으로 문집에 많이 수록되어있다.

강학일기는 학문을 갈고 닦는 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독서와 수학은 조선시대 사대부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중요한 일이다. 강학일기를 세분화하면 독서일기와 수학일기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일기로 살펴보았을 때 강학일기는 대부분 생활일기에 포함되어 기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자료가 매우 소략하였다.³⁵⁾ 그러나 문집에 수록된 강학일기는 개인일기의 강학일기와 다르게 비중이 높다. 그 이유는 개인일기로 분류하는 강학일기는 대부분 생활일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생활일기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문집에서는 자신의 수양은 중요하게 여겨 다른 내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강학일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일기는 특정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아 진행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사건일기의 내용으로는 장례과정, 疏를 올리는 과정, 국청 진행과정, 증직을 받는 과정, 송사를 하는 과정 등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만을 문집에 수록하였다.

사행일기는 작성주체가 공적인 임무를 받아서 파견되는 점은 사환일기, 일정기간 동안의 여정과 견문을 기록하는 것은 기행일기와 유사하나 외교적인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⁶⁾ 그러므로 국내가 아닌 국외에 업무수행을 위한 직책을 가지거나 그 무리에 포함되어 여정을 떠나는 일기이다.

33)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432~439쪽.

34) 이종숙, 위의 글, 26쪽.

35) 최은주, 위의 글, 17쪽

36) 이종숙, 위의 글, 26쪽.

문집에 수록된 사행일기는 중국으로 가는 여행일기가 수록되어있다. 다른 나라로의 사행보다는 중국으로의 사행을 중요하게 여겨 수록한 듯하다.

전쟁일기는 오로지 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병장기를 활용한 전투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기이다. 개인일기에는 대표적인 전쟁인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 외에 이인좌의 난, 홍경래의 난, 의병활동 등 다양한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나,³⁷⁾ 문집에 수록된 일기들은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기록이다.

생활일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날짜순으로 적은 일기이다. 문집에 수록된 생활일기는 현대 일기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일기가 기록되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상으로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분석해보았다. 일기를 문집에 수록할 때 수록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집의 편찬을 주도하는 후손이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는 개인일기로 남겨진 주제와는 다른 주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내용에 따라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내용별 유형분류에 나타난 수록빈도는 정사일기→ 기행일기→ 강학일기→ 사건일기→ 사행일기→ 전쟁일기→ 생활일기 순이다.

개인일기의 최근 유형분류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일기의 유형분류 가운데 기행일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채 10%로 되지 않지만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기행일기는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기행일기에는 저자가 유람한 지역에 대한 느낀 점을 작품을 기록해놓은 경우가 많다. 이는 저자의 작품을 모아 만드는 문집에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일기의 분류보다는 문집에 수록된 기행일기가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강학일기는 문집에 수록될 때는 강학의 내용만을 뽑아서 수록하기 때문에 개인일기에 다른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인일기로 분류는 생활일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전쟁일기는 개인일기의 유형분류에서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문집에 수록될 때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집을 편집하여 수록내용을 정할 때 전쟁이나 일상생활적인 내용보다는 여행을 떠나 경치를 보고 감상한 느낌을 적은 작품이나 글을 수록하는 문집의 목적성에 맞게 개인일기가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일기에서 비중이 높았던 생활일기는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유형에서는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편집에 의하여 주제를 가진 일기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37) 이종숙, 위의 글, 26쪽.

2. 일기의 수록 방식

문집은 개인의 저술을 집성(集成)한 것으로, 개인의 삶과 사유양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³⁸⁾ 개인의 삶과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일기만한 자료는 없다. 이 2가지 자료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집에 수록된 일기이다.

『한국문집총간』의 문집들을 살펴본 결과 ‘일기’나 ‘일록’이라는 제목으로 문집에 수록되는 것은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일기가 가장 먼저 수록된 문집은 1577년(선조 10)에 간행된 정사룡의 『호음잡고』이다. 『호음잡고』에 수록된 ‘일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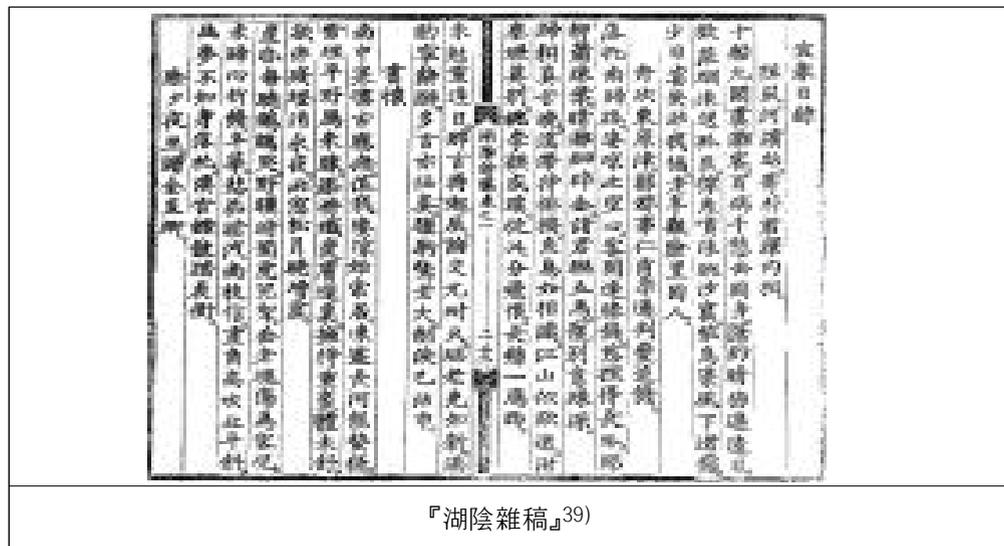


그림 II-1 『湖陰雜稿』에 수록된 일기

위와 같이 『호음잡고』에 수록된 ‘일록’은 일반적인 일기의 형식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문집에는 저자의 시·서 등 살아있을 때 남긴 작품을 수록하여 저자를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일기 형식을 띄는 방식이 아닌 지역을 방문하고 저자의 감정만이 나타나는 작품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일기가 처음 문집에 수록되는

38) 심경호, 앞의 글, 104쪽.

39)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방식이 일기 자체를 문집에 수록하는 것이 아닌 『호음잡고』에서 나타난 방식과 같은 일기에 기록된 저자의 작품만을 선별하는 1차적인 자료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된 문집은 1583년(선조 16)에 간행된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매월당집(梅月堂集)』에도 그 지역을 여행하고 느낀 점을 나타낸 시들을 묶어서 <관동일록(關東日錄)>, <명주일록(溟州日錄)>처럼 ‘지역명’과 ‘일록’을 합친 제목으로 문집에 수록하였다.

1차적 자료로만 활용되던 일기가 일기형식을 갖추어 ‘일기’나 ‘일록’이라는 이름으로 문집에 본격적으로 수록되는 시기는 17세기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에 문집에 수록된 일기들의 수록방식을 기사발취형식, 서술형식, 일기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기사발취형식

기사발취형식은 일기 자체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일기에서 저자와 관련된 기사를 발취하여 수록한 것이다. 발취기사형식으로 가장 먼저 수록된 것은 송인(宋寅, 1517~1584)의 『이암유고(頤庵遺稿)』이다. 『이암유고』에 발취된 일기가 수록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2 기사발취형식의 일기 - 1

『미암유고』에 수록된 발췌일기는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이다. 『미암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 송인에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이 수록방식은 발췌하는 일기의 제목인 ‘柳眉巖希春日記…’라고 출처를 제일 앞에 적고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부록의 위치에 수록되어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록된 문집은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의 『만전집(晩全集)』에도 월천 이정암(月川 李廷菴, 1541~1600)의 일기에서 저자 홍가신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만전집』도 마찬가지로 ‘李公月川廷菴日記…’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와 다른 기사발췌의 수록방식은 다음과 같다.

<p>當代文章之士盧守愼金貴榮尹鎔李俊白朴承任 奇大升最著云<small>柳眉巖希春日記</small></p>	<p>去就不敢議爲然似無名義且與前疏意大相逕 豈弟人也<small>出眉巖日記</small> 庚午五月二十五日政李珥入校理首望受<small>點珥</small> 曾於讀書堂朔計著東湖問答極陳鄭順朋等五 姦之罪又嘗於領相李公略言乙巳忠賢被殺之 端極言而力爭之以爲當改正僞功至是上擢 置經幄蓋嘉其骨鯁而欲施其言也 六月初九日禺中以李校理珥所製劄子<small>文</small>進入其 中有宦官宮妾或脅於威或誘於利不明是非者 有之無乃殿下聽其言而遲疑不斷乎以殿 下聖明必無是理而臣等不能無疑耳上答曰 是何有此無理之言乎莫大之事豈婦寺所得干 栗谷全書<small>卷三十八 附錄六十八 十一</small></p>	<p>宣廟丙子以吳異欲報南宮斗執誨之恩乞圖差訓 講故余從之簡于許泰議<small>暉</small>方修書而許公至以 此為請鮮從之又稱金永生權選之賢又以金士元 任八元可用為囑<small>眉巖集</small> 宣廟己巳閏六月許太輝簡我云聞居館儒生欲習 科文若以論策賦表每旬命題則可謂遠其類矣<small>原</small> 記集</p>
<p>『嘯臯集』 41)</p>	<p>『栗谷全書』42)</p>	<p>『草堂集』43)</p>

그림 II-3 기사발췌형식의 일기 - 2

40)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1)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2)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3)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希春以千鎰方纒疾病不堪從仕願姑培養為言
 上亦以為然到今思之千鎰病日益瘳死日益迫若
 無 養恤之恩恐有後時之悔欲於 經進乞下書
 監司救恤藥物以表一方之善士云 增補錄 經
 金千鎰士重中生員初試第四善人生氣澆喜 增補錄 經
 金千鎰士重德學深厚潛然自守不求人知羅牧韓
 公之報亦未能盡其實亦可恨也 上同
 見全羅監司書狀道內遺逸之士薦舉事有 旨書狀
 導良各官行移訪問羅州牧使韓轅牒呈內金千鎰
 天建齋集附錄卷七 增補錄 三
 氣質純粹力行學問早喪父母鞠於外祖母不離膝
 下如事親母心喪三年至於啜粥聞者莫不敬服云
 云上項金千鎰學問之篤見聞所敷服事答下吏曹
 仍 傳曰金千鎰等行實至為可嘉 褒獎事令該
 曹議于大臣 上同
 四月司憲府持平金千鎰謝病免千鎰為人精詳勤
 懇一日八侍極陳時弊且請收用賢才以救世道辭
 甚懇切累千百言自卯至巳而 上不答一語千鎰
 意沮遂謝病而退 增補錄 經
 李珣將還鄉千鎰謂珣曰我國士大夫受 國厚恩

『健齋集』44)

<p>士亭集 述金千鎰柳夢井柳夢鶴金沔等以學行相繼起叙 六品職 <small>出參判李廷 警東開詳記</small> 萬曆二年甲戌八月先生以抱川縣監棄官歸先生 憂抱川穀少無以活民請折受魚梁捉魚賣穀以助 邑用朝廷不從之先生初無久於作邑之計只將戲 耳旋棄官 <small>出石潭 日記</small></p>	<p>栗谷全書 <small>卷三十八 附錄六</small> 五 之語常自勉而勉人學者不可不知也 <small>出宋九卷 時烈文集</small> 前月之晦歷見叔獻于栗谷案上展開詩傳國風渾 問之曰今年讀得幾多書乎答曰今年讀四書三 巡三遍摠計九遍矣今又始讀詩至王風矣渾 聞之不覺歎羨以余長閒又勝於叔獻之修屋幹 家接賓多事而終年不讀一卷書如此而望有見 於道理殆却步而圖前也 <small>出牛溪 日記</small></p>
--	--

『栗谷全書』45)

『士亭遺稿』46)

그림 II-4 기사발췌형식의 일기 - 3

44)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5)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6)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위의 일기들은 저자와 관련된 기사를 발췌한 일기 명을 쓰거나 ‘出○○日記’라고
 기사에 맨 끝에 기록하여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 형식은 출처를 앞에 적는 형식보
 다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할 때 일반적인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기사발췌형식은 附錄, 語錄, 摭錄, 補遺, 遺事의 위치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문집간행년도로 파악하였을 때 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초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술형식

서술형식으로 수록된 일기부터는 저자가 기록한 일기를 문집에 수록하였다. 서술형
 식은 일기를 수록할 때 일기의 형식과는 다르게 날짜에 따른 기사의 구분 없이 서
 술형처럼 나열한 형식이다. 서술형식으로 가장 먼저 수록된 문집은 김굉의 『구와집』
 에 수록된 <춘방일기>로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II-5 서술형식의 일기 - 1

『구와집』에 수록된 방식은 날짜에 따른 기사를 줄을 바꾸어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표시를 사용하여 기사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아무 표시도 없는 서술형식으로 수록된 일기도 있다. 대표적인 문집으로 조근(趙根, 1631~1690)의 『손암집(損庵集)』이다. 『손암집』에 수록된 일기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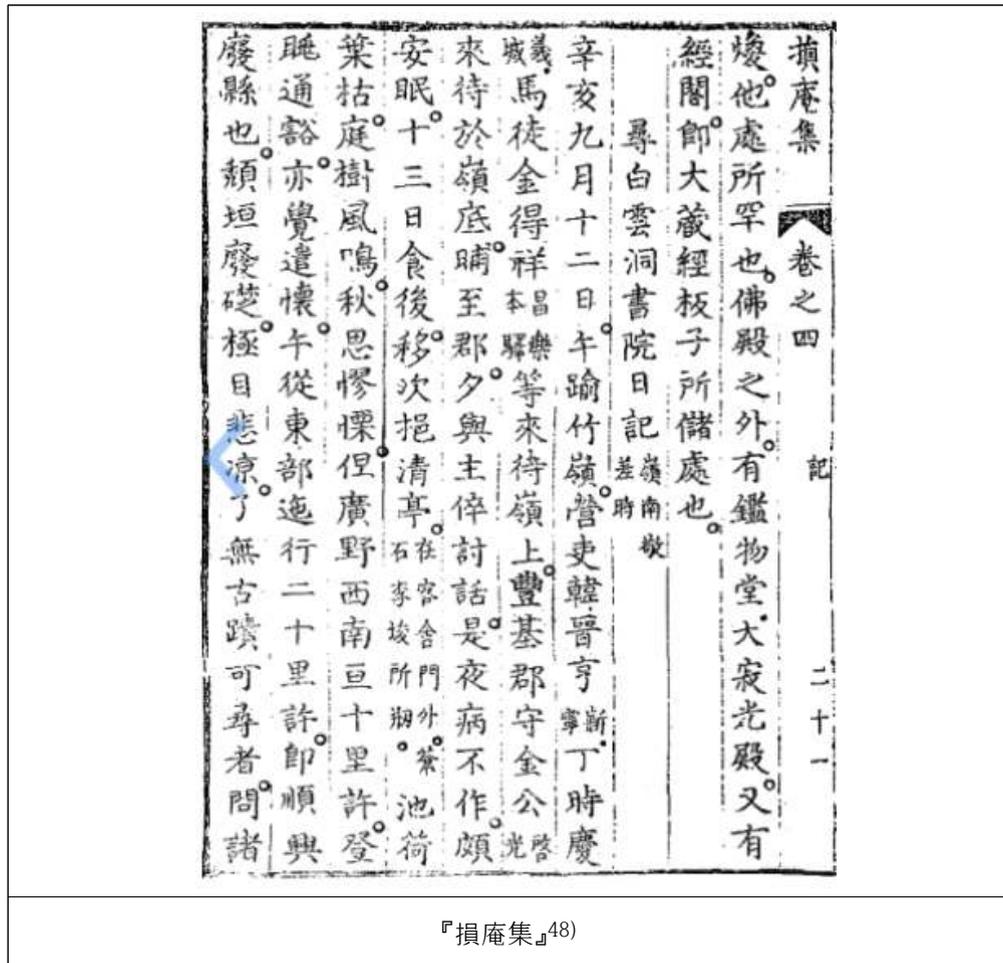


그림 II-6 서술형식의 일기 - 2

47)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48)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손암집』에 수록된 <심백운동서원일기(尋白雲洞書院日記)>는 날짜가 기록은 되어 있으나 별도의 구분 없이 서술형으로 나열한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기행문형식과 비슷한 기행일기와 하루하루를 기록한 생활일기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문집 전체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적은 양의 문집에 수록된 일기만이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3) 일기형식

일기형식은 현대의 일기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날짜를 적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줄을 바꾸어 다음 날의 기사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록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기형식으로 수록된 대표적인 문집은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우복집(愚伏集)』이다. 『우복집』에 수록된 <경연일기(經筵日記)>는 1623년(인조 1)부터 1629년(인조 7)까지의 방식은 경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경연일기이다. <경연일기>가 수록된 형식은 다음과 같다.



『愚伏先生集』49)

그림 II-7 일기형식의 일기 - 1



『眉巖先生集』⁵⁰⁾

그림 II-8 일기형식의 일기 -2

『우복선생집』에 수록된 방식은 기록되는 년, 월,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날에 해당하는 경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 경연에 해당하는 월, 일을 기록하고 그 날의 일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개인일기에는 5월15일과 6월12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이나 문집의 편집과정에서 삭제되고 문집에 수록되는 목적성에 맞게 내용의 편집을 하고 수록된 것이다. 편집과정에서 날짜의 구분은 하루하루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년, 월 단위로 묶어서 기사를 구분하기도 한다.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방식은 일기의 년을 기록하고 해당하는 달에 따라 날짜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일기가 문집에 수록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 3가지 형식으로 편집되어 수록되는 일기의 양은 문집에 詩, 書에 수록되는 작품의 양에 비하여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일기에서 저자와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기에 지극히 적은 양으로 수록되었다. 이후 개인일기가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

49)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50)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였고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일기를 남기는 현상이 심화되어 19세기에 가장 많이 전해진다.⁵¹⁾ 이에 따라 문집에 수록되는 경향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기가 자료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저자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기는 문집 수록 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주제만을 기록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활상이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인⁵²⁾ 생활일기는 한 권이상의 분량으로 수록되었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의 기록가치가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현대적인 일기와 가장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일기 가운데 『宣祖實錄』의 자료로 활용될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문집이 있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眉巖日記』를 대상으로 삼았다. 『미암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양상은 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양상과 유사하며, 5~18권까지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일기가 수록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집인 『眉巖先生集』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미암일기』가 문집에 수록되는 내용과 편집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이종숙, 위의 글, 24쪽.

52) 이종숙, 위의 글, 26쪽.

Ⅲ.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 내용 비교

1.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

1) 眉巖 柳希春과 『眉巖日記』

① 柳希春의 생애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 1513~1577)은 본관은 善山으로 1513년(중종 8) 12월 4일 아버지 성은 유계린(城隱 柳桂隣, 1478~1528)과 어머니 耽津 崔氏의 둘째 아들로 해남에서 태어났다. 字는 仁仲이며, 號는 眉巖, 眉巖居士, 寅齋, 漣溪 등이 있는데 미암을 주로 사용하였다. 미암으로 호를 지은 것은 海南의 金剛山 남쪽에 ‘아미(蛾眉)’라는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호를 眉巖으로 삼은 것이다.⁵³⁾

어려서부터 기질이 보통아이들과 달라서 아이들과 놀지 않고 매일 단정히 앉아 독서를 하였다⁵⁴⁾고 한다. 자질이 뛰어났던 이유는 부모님의 교육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 영향으로 5세에 시를 지을 줄 알았고 9세에는 아버지께 『通鑑』을 배웠다.

1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외조부 최부(崔溥, 1454~1504)의 제자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1483~1536)와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1478~1543)에게 학문을 배웠다.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21세와 23세에 羅州牧使가 실시한 시험에서 장원을 하고 1537년에 24세의 나이로 송덕봉(宋德峯, 1521~1578)과 혼인하였다. 1538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다음 해에 文科 別試에 丙科로 급제하여 겨울에 成均館 學諭에 임명되었다.

이후 實錄廳 兼 春秋館 記事官과 藝文館 檢閱을 지내고, 1542년에 世子侍講院 說書에 임명되어 김안국과 같이 세자였던 仁宗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스승이었던 김안국이 죽자 어머니를 고향에 모시고 내려가 봉양한다는 명목으로 사직을 청하자 中宗은 사직대신 茂長縣監에 제수시켰다가 1545년 大司憲 宋麟壽의 천거로 인하여 조정으로 돌아가 弘文館 修撰이 되었다. 그러다 1545년(명종 즉위년)에 乙巳士禍로

53) “公海南所居 乃金剛山之南麓 家後有巖如蛾眉 故自號眉巖.” 『眉巖先生集』 卷20 <諡狀>.

54) “生異質 不與群兒嬉戲 每端坐讀書.” 『眉巖先生集』 卷20 <諡狀>.

인하여 파직을 당하고 2년 뒤인 1547년(명종 2)에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유희춘의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鍾城으로 옮겨졌다. 유배생활을 하면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며, 교육과 저술에 힘을 쏟았다. 1565년(명종 20)에 恩津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567년(명종 22)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풀린 직후 經筵官 兼 成均館 直講으로 조정에 나아가 경연관으로서 자질을 발휘하여 선조의 신임을 받아 大司成, 大司諫, 大司憲, 副提學, 禮曹參判, 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64세가 되던 해인 1576년(선조 9)에 건강과 저술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그러나 3번의 사직상소를 통해 허락을 받아 고향에 내려가 저술에 전념하다 다음 해에 다시 불렸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1577년(선종 10) 5월 15일에 사망하였다.

21년간의 오랜 유배생활을 마치고 관직에 복귀하여 선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官人·學者로서 後人들에 귀감이 되었다. 1580년(선조 13)에 崇政大夫 左贊成으로 추증되었으며, 1630년(인조 8)에 文節公이란 시호를 받았다.⁵⁵⁾

② 『眉巖日記』의 서지사항

	<p>『眉巖日記』⁵⁶⁾ 筆寫本 11冊: 行字數不定: 37.8~47.5 × 24.8~38.0 cm. 소장처: 전남 담양 모현관(慕賢館)</p>
---	---

그림 III-1 『眉巖日記』

『眉巖日記』는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 1513~1577)이 친필로 기록한 일기로 보물

55) 송재용,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39-53쪽.

56)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제 260호이다. 일기의 내용은 유배지인 恩津에서 풀려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유희춘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전해지는 일기는 11책으로 일기 10책과 부인 송덕봉과 나눈 시 등을 적은 부록 1책이다. 그러나 원래 일기의 분량은 1567년부터 1577년까지 기록한 21책으로 해남의 白明憲의 집에서 보관하다⁵⁷⁾ 일부를 유실하여 14책이 전해지다가 현재 1567년부터 1576년까지 기록된 10책만이 남게 된 것이다. 전해지는 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책수	일자
제 1책	567년(丁卯) 10月 1日 - 1568년(戊辰) 3月 29日
제 2책	1568년(戊辰) 3月 29日 - 11月 5日
제 3책	1569년(己巳) 5月 22日 - 12月 30日
제 4책	1570년(庚午) 4月 24日 - 7月 8日
제 5책	1570년(庚午) 7月 9日 - 12月 25日
제 6책	1570년(庚午) 12月 25日 - 1571년(辛未) 12月 3日
제 7책	1572년(壬申) 9月 1日 - 1573년(癸酉) 5月 26日
제 8책	1573년(癸酉) 6月 1日 - 12月 30日
제 9책	1574년(甲戌) 1月 1日 - 9月 26日
제 10책	1575년(乙亥) 10月 27日 - 1576년(丙子) 7月 29日
제 11책	附錄(유희춘과 부인 송씨의 시문, 기타 잡록)

표 III-1 『眉巖日記』의 기록일자

전해지는 일기의 1책부터 10책까지의 날짜를 살펴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지는 일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568년(戊辰) 11月 6日 - 1569년(己巳) 5月 21日
- ㉡ 1570년(庚午) 1月 1日 - 4月 23日
- ㉢ 1571년(辛未) 12月 4日 - 1572년(壬申) 8月 30日
- ㉣ 1574년(甲戌) 9月 27日 - 1575년(乙亥) 10月 26日
- ㉤ 1576년(丙子) 8月 1日 - 1577년(丁丑) 5月 13日⁵⁸⁾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미암일기』는 『宣祖實錄』의 사료로 사용되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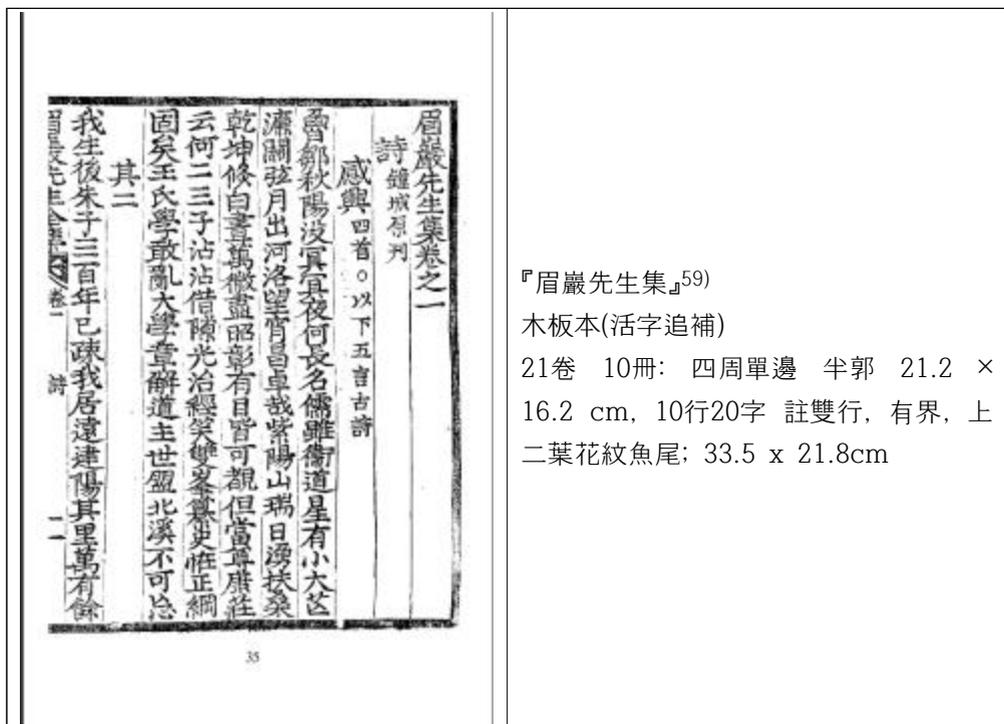
57) “文節公日記二十一卷 在於海南白明憲家 直孫所當極力推尋, 留置本家矣.” 『眉巖日記』 11冊 <柳文節公夫人宋氏答文節公書>

58) 담양향토문화연구회, 『眉巖日記草』 제 5집, 1996, 524~525쪽.

만큼 유희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빠진 일자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희춘의 문집인 『眉巖先生集』이 있다. 유희춘의 저술을 비롯하여 일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기의 빠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미암선생집』을 살펴볼 것이다.

2) 『眉巖先生集』의 편찬과 구성

① 『眉巖先生集』의 간행과 현황



『眉巖先生集』⁵⁹⁾

木板本(活字追補)

21卷 10冊: 四周單邊 半郭 21.2 × 16.2 cm, 10行20字 註雙行, 有界, 上二葉花紋魚尾; 33.5 x 21.8cm

그림 III-2 『眉巖先生集』

『眉巖先生集』은 미암 유희춘의 저술을 모아 만든 문집이다. 유희춘은 평소에 학문 연구에 힘을 쏟아 많은 편찬서들을 남겼다. 『六書附註』, 『國朝儒先錄』, 『獻芹錄』, 『新增類合』, 『續蒙求』 등은 조정에 바쳐져 공식적으로 간행된 편찬서이며, 『綱目考異』, 『歷代要錄』, 『致堂管見標題』, 『川海錄』 등은 집에 보관된 편찬서들이다. 이렇

5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46-가441)

게 많은 편찬서들과 詩文 같은 저술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산일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眉巖先生集』이 처음 간행된 것은 1612년(光海 4)이다. 1612년에 간행된 문집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鏤板考』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누판고』에는 ‘1612년 함경도 관찰사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 유희춘이 鍾城에 유배되었을 때에 지은 詩稿 1권을 구한 뒤 스스로 교정을 하여 鍾城에서 간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鍾城에서 간행하였다는 근거는 『미암선생집』 중간본의 권 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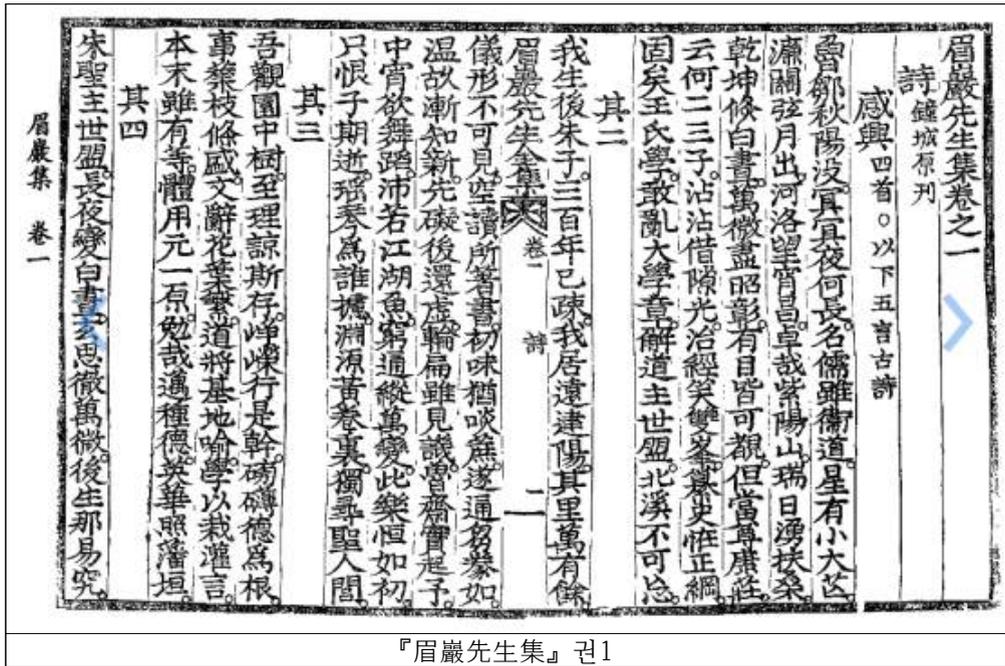


그림 III-3 『眉巖先生集』 卷首面

위의 그림과 같이 詩題아래에 ‘鍾城原刊’이라고 기록되어 종성에서 약 120여 수의 시를 1권 분량으로 간행하였을 것이다.

이후 『미암선생집』은 1869년(고종 6)에 중간하게 된다. 중간을 주도한 인물은 유희춘의 9대손인 유경심(柳慶深)이다. 유경심은 보관되어있던 『미암일기』를 비롯하여 수집한 시문을 가지고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89~1879)에게 교정을 받아 10책으로 편차하였다. 그러나 판각을 마치고 유경심이 죽어 인출되지는 못하고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후 유정식(柳廷植, 1822~1889)이 1866년(고종 3)에 다시 시작하여 윤치희(尹致羲, 1797~1866)의 서문과 유경집(柳慶集)의 발문을 받아서 1869년에 20권10책으로 구성하였다.⁶⁰⁾ 문집의 간행은 현재 목판이 남아있는 담양에서 하였을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중간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4-6021), 연세대학교(고

서(II) 811.97 유희춘), 충남대학교(고서학산 集.別集類 1652), 계명대학교((고 811.081 유희춘口) 등에 소장되어있다.

이후 1897년(광무 1)에 중간본에 유희춘이 배향된 담양 의암서원(義巖書院)의 賜額 기사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발문을 활자로 추가하고 보충하여 21권 10책으로 편차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追補本은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41), 전남대학교(춘전OC4B1 미610), 이화여자대학교(811.085 유98),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03B-0393), 고려대학교(경화당 D1 A207), 원광대학교(810.819 0615) 등에 소장되어있다.

② 『眉巖先生集』의 구성

『眉巖先生集』의 구성은 마지막 단계인 追補本으로 살펴보면 卷首, 본집 18권, 부록 3권으로 총 21권 10책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권수	구성
卷首	備忘記, 致祭文, 賜祭文, 序
卷 1~2	詩
卷 3~4	文
卷 5~14	日記
卷 15~18	經筵日記
卷 19~20	附錄
卷 21	續附錄

표 III-2 『眉巖先生集』의 구성

『眉巖先生集』의 권수에는 宣祖의 備忘記와 致祭文, 顯宗의 賜祭文, 奇正鎭과 尹致羲의 序가 수록되어있다.

다음으로 권 1~2는 유희춘이 저술한 시로 권 1에는 五言古詩 15수, 七言古詩 11수, 五言律詩 10수, 七言律詩 39수, 排律 1수, 五言絶句 4수, 七言絶句 45수가 수록되어있다. 이 시들은 함경도 종성에서 한 권으로 간행한 초간본에 실려 있던 시이다. 권 2는 권 1에서 수록되지 못하고 빠진 시들을 보충한 시의 補遺로 四言詩 3수, 五言古詩 4수, 五言絶句 43수, 七言絶句 80수, 五言律詩 13수, 七言律詩 10수가 수록되어있다.

권 3~4는 유희춘이 지은 글로 권 3에는 疏 5편, 書狀 7편, 書 17편, 序 3편, 記 1편, 跋 2편, 銘 5편, 祭文 8편, 碣 2편, 雜著 6편이 수록되어있다. 이 가운데 소는 獻芹錄을 올리며 지은 箋과 사직소 등이며, 서장은 사직을 청하는 글과 왕의 하사품을 사양하는 글이며, 書는 金麟厚 등과 주고받은 편지와 李浚慶, 梁應鼎이 보낸

60)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글도 수록되어 있다. 序, 記, 跋은 스승 김안국의 『慕齋集』, 외조부 崔溥의 『漂海錄』과 『晦齋文集』에 대한 글이다. 갈문은 저자의 부친과 모친에 대한 묘갈문이다. 잡저 중 〈續蒙求題〉는 李安平의 『蒙求』를 보고 감명을 받아 『續蒙求』를 찬술하였다는 글로 1558년(명종 13)에 쓴 것이고, 〈續諱辨〉은 經書에 나오는 잘못된 글자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朱子文集語類 校正凡例〉는 『朱子大全』과 『語類』의 교정을 끝내고 1575년(선조 8)에 쓴 글로, 당시 사림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유희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권 4에는 〈庭訓〉이 수록되어 있는데, 十訓과 內篇, 外篇 上, 下로 편차되었다. 十訓은 아버지를 통해 얻은 교훈을 기록하여 저자가 평생 경계로 삼은 것이다. 10조목은 氣像, 室慾, 事親, 齊家, 修身, 處事, 知人, 接物, 戒仕誨遷, 文學으로 이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內篇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 5조목이 기술되어 있다. 外篇의 上에는 조정에서 벼슬할 때 알아야 할 예절과 관련하여 8조목, 下에는 지방 관으로 나갔을 때 알아야 할 것과 관련하여 8조목이 기술되어 있다.

권 5~18까지는 유희춘의 일기를 수록하였다. 권 5~14까지는 〈日記〉라는 권 명으로 『眉巖日記』를 편집하여 날짜순으로 수록하였고, 권 15~18까지는 일기에서 경연과 관련된 기사만을 모아서 편집한 〈經筵日記〉이다. 각 권에 수록된 일기의 일자는 다음과 같다.

권수	일자
권 5	1567년(丁卯) 10월 3일 - 1568년(戊辰) 4월 30일
권 6	1568년(戊辰) 5월 2일 - 11월 5일
권 7	1569년(己巳) 5월 23일 - 12월 30일, 1570년(庚午) 4월 24일 - 6월 28일
권 8	1570년(庚午) 7월 1일 - 12월 30일
권 9	1571년(辛未) 1월 1일 - 11월 23일, 1572년(壬申) 9월 2일 - 12월 29일
권 10	1573년(癸酉) 1월 1일 - 12월 30일
권 11	1574년(甲戌) 1월 1일 - 7월 21일
권 12	1574년(甲戌) 8월 1일 - 9월 25일, 1574년(甲戌) 10월 9일 - 1575년(乙亥) 1월 29일
권 13	1575년(乙亥) 2월 1일 - 2월 29일, 1575년(乙亥) 10월 27일 - 1576년(丙子) 7월 29일
권 14	1576년(丙子) 8월 3일 - 1577년(丁丑) 5월 13일

권 15	1567년(丁卯) 11월 - 1569년(己巳) 8월까지 33회의 진강기록
권 16	1570년(庚午) 5월 - 1573년(癸酉) 4월까지 27회의 진강기록
권 17	1574년(甲戌) 1월 - 5월까지 17회의 진강기록
권 18	1574년(甲戌) 7월 - 1576년(丙子) 9월까지 13회 진강기록

표 Ⅲ-3 『眉巖先生集』의 수록일기 기록일자

권 5~14의 <日記>의 기사들은 현전하는 『미암일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권 12의 1574년(甲戌) 10월 9일 - 1575년(乙亥) 1월 29일의 기사와 권 13의 1575년(乙亥) 2월 1일 - 2월 29일, 권 14의 1576년(丙子) 8월 3일 - 1577년(丁丑) 5월 13일의 기사는 전해지지 않고 문집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 기사들로 인하여 『미암일기』로는 확인하지 못한 유희춘의 마지막 4년의 하루하루의 기록을 전부 볼 수는 없지만 일부인 174일의 생활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2차적으로 편집한 문집에 수록된 기사를 통해 1차적 자료인 일기의 사라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기의 내용을 수록할 때 권 15~18까지 경연에 관한 내용을 따로 모아 편집한 것은 유희춘이 경연에 대한 기록을 기정진이 편집과정에서 다른 기사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 19~20은 附錄으로 권 19에는 祭文 28편, 輓詞 38편과 한준겸이 지은 시, <名臣錄>에서 유희춘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있다. 권 20은 허봉(許篈, 1551~1588)이 지었으나 전해지지 않은 行狀과 諡狀 각 1편, 유희춘을 배향하는 忠賢祠와 義巖書院과 관련하여 사액상소 1편, 충현사 창립과 관련된 집사들에게 보이는 글, 丁享文 2편, 祝文 1편이 수록되어있다.

권 21은 續附錄으로 사액과 관련한 상소와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이 올린 啓辭 등 과 9대손 유경렴과 송병선의 발문이 수록되어있다.

위 구성과 같이 『미암선생집』은 유희춘의 저술 가운데 『미암일기』를 편집해서 수록한 것이 21권 가운데 13권일 만큼 일기의 수록비중이 다른 문집들에 비하여 많다. 그 이유는 유희춘이 남긴 많은 저술들이 사후에 바로 문집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사후에 바로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이유가 유경집의 발문에 기록되어있다.

‘불초 후손들이 머나먼 궁벽한 시골에 살면서 여러 차례 전쟁으로 생긴 화재를 겪느라 공의 유고는 흩어지고 사라져 몇 편이 없으니, 거의 아름다운 옥이 광채를 감추고 아름다운 표범이 무늬를 잃어버린 꼴이다.’⁶¹⁾

위 발문의 내용처럼 유희춘 사후 후손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대규모의 재물이 들어가는 문집을 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문집 간행을 못하고 전란을 겪으면서 저술들이 많이 사라지고 겨우 남겨진 저술들과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암선생집』과 『미암일기』를 비교하는 것은 문집에 수록된 많은 일기의 기사와 일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일기의 문집수록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간에 빠진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2. 『眉巖先生集』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내용

일기의 내용을 문집에 수록하는 것은 내용을 선별하는 주요 편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되는 양상을 파악해보면 사적자료인 일기가 공적인 자료인 문집에 수록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대적 일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미암일기』에는 2205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기사는 일기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문집에만 수록된 기사를 제외한 비교대상의 기사는 총 936건으로, 약 42% 정도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이 기사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 특징은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 일상생활 속 감정표현, 저자의 개인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관직생활과 관련된 내용

문집에 수록되는 내용은 대부분 저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학술적인 내용을 주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미암선생집』에 수록되는 기사의 내용도 대부분 업무나 학술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편지 등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업무와 관련된 기사는 강론이나 경연에 참여한 기사, 전교를 받은 기사, 관직임명과 관련된 기사, 문서를 기록해놓은 기사, 조보로 조정의 업무를 확인하는 기사 등으로 자신과 관련된 조정에

61) 不肖後承 僻在遐鄉 屢經兵燹 公之遺稿 散亡無幾 殆將美玉韜輝 斑豹泯文. 『眉巖先生集』 卷 21.

서 일어나는 일을 편집하였다.

저술활동은 유희춘이 남긴 여러 시문이나 저서들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고받거나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사 등으로 학술적으로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조강에 참여한 기사로 1569년 6월 9일에 유희춘이 조정에 들어가 조강에서 들은 일을 수록한 부분이다.

【9일】오늘 조강(朝講)에 특진관 김개(金鑑)가 지사(知事)의 신분으로 입시하여 또 옳지 않은 의론을 내놓자, 대간들이 합사(合司)하여 계청(啓請)하기를,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해야 한다.” 하고, 홍문관에서도 차자(劄子)를 올렸다고 한다.

○ 좌승지 기대승(奇大升)과 우승지 심의겸(沈義謙)이 아뢰기를,

“김개(金鑑)가 전일에 아뢴 것은 매우 의심스럽고 해괴합니다. 지금 또 계사(啓辭)를 보니 매우 흉악한 마음을 품고서 군주를 모함하고 나라를 망칠 말을 하였습시다. 전일에 신들의 생각은 ‘노망한 말을 망발하는 것에 불과하니 진정시키는 편이 좋겠다.’라고 여겼습시다. 신들이 전일 아뢴 것은 결국 간사한 자를 구제해주려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매우 황공하여 처벌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주상이 답하기를,

“늙은 신하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조용히 진정시켜 조정이 화평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 대죄하지 말라.”하였다.

○ 승정원의 전원이 아뢰기를,

“김개가 아뢴 것은 나라의 존망(存亡)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글로 써서 아릴 수는 없으니, 신들은 전원의 면대를 청합니다.”

하였다. 주상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고 곧 불러들여 보자, 승지 등이 극진히 아뢰었다.⁶²⁾

이날의 기사를 『미암일기』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초9일 개임. 식후에 羅兄의 喪을 보러 가서 邊麒壽로 더불어 상여를 사고 소를 사고 祿을 받을 일을 논의했다. 軍資直長 朱士豪도 와서 빈 섬 50일, 長木 50

62) 初九日 今朝講時 特進官金鑑以知事入侍 又發不正之論 臺諫合司啓請削奪官爵 門外黜送 弘文館亦上劄云 ○左承旨奇大升, 右承旨沈義謙啓曰 金鑑前日所啓 極爲疑怪 今又見啓辭 極爲包藏 陷君亡國之言也 前日臣等之意 以爲老妄之言 不過妄發之所致 莫若鎮以靜之矣 臣等前日之啓 未免有營救姦邪之罪 至爲惶懼 待罪 上答曰 老臣豈有他意 靜以鎮之 朝廷和平 莫此爲善 勿待罪 ○政院全數啓曰 金鑑所啓 存亡關係之事 筆札不得書啓 臣等請全數面對 傳曰 如啓 遂引見 承旨等極陳之 『眉巖先生集』 卷7, 1569년 6월 9일.

條, 포목 1필을 더 도와줬다.

- 吳二相 謙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갔다.
- 오전에 집에 돌아왔더니 柳夢井이 와서 松都를 가겠다고 했다.
- 夫人이 기운이 쾌하지 못하여 저녁 식사에 素食을 아니했다. 부득이한 일이다. …중략…⁶³⁾

문집에 수록되는 기사를 일기에서 살펴보면 조강과 더불어 羅兄의 일을 처리하였으며, 吳謙이 집에 왔다갔었으며, 夫人의 상태에 대한 기록과 같은 개인생활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었다. 그러나 문집에 수록할 때는 조강에서 金鑑(金鑑, 1504~1569)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건만을 수록하였다.

일기에는 문집에 수록된 부분 뒤에 金鑑의 발언에 대한 비판하며 金鑑를 삭탈관직하기를 청하는 兩司의 습담한 내용⁶⁴⁾이 있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조강의 내용만이 수록되는데 이는 편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앞의 기사와 중복된다고 생각하여 탈락된 것이라 생각된다.

강론의 참여와 비슷한 경연에 참여한 기사는 기정진이 편집 시에 다른 기사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경연일기〉라는 제목으로 〈일기〉 뒤에 90회의 경연 기사를 따로 수록하였다. 경연에 관련된 기사를 수록할 때에는 일기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유사어의 변화 같은 간략한 편집을 거쳤다. 경연과 관련된 기사는 그대로 수록하였지만 그 날의 경연외의 사건은 수록하지 않았다.

강론과 경연과 관련된 기사는 개인의 생활이 임금을 비롯하여 여러 학식이 뛰어난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의 공론이나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사건이므로 문집 수록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여 큰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다.

다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임금이 내린 전교를 수록할 때의 내용 편집을 살펴볼 것이다. 1569년(선조 2) 9월 13일에 임금이 전교가 있는 기사이다.

【13일】주상께서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사람을 사관(四館)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에서 신래(新來)라 지목하여 학대하고 모욕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시궁창의 더러운 진흙을 그 얼굴에 바르고 이를 ‘당향분(唐鄉粉)’이라 하고, 관(冠)과 의복을 찢고 더

63) 晴 食後往看羅兄之喪 與邊麒壽 共議買車買牛受祿之事 軍資直長朱士豪亦至 加救空石五十葉.長木五條.布一匹 ○吳二相謙 臨陋不遇而去 ○午前 歸舍 柳夢井 來告將詣松都 ○夫人氣不快 而開素於夕食 不得已也 …중략… 『眉巖日記』 冊3

64) ○ 申時 兩司合啓 知事金鑑 本以邪妄之 常懷媚嫉之心 忌克之族 …중략… 請命削奪官爵 門外黜送 上不允 弘文館以筭子 啓請 金鑑門外黜送 亦不允, 위의 책.

러운 물속에 밀어 넣어 귀신 형상을 만들어 사람이 차마 볼 수가 없으며, 몸을 상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을 뿐만 아니라, 체모에도 손상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폐속(弊俗)은 이미 예문(禮文)에도 없고 또 중국에도 없는 일인데 관습이 되어 고칠 줄을 모르니 무식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는 신참과 고참 간에 이를 바로잡아 살필 것이며 더럽히고 학대하며 희롱하는 일을 일절 엄히 고치도록 하라. 만약 옛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예조(禮曹)에 이르노라.” 하였다.

○ 신래(新來)를 학대하여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일은 나도 전일에 여러 번 명공(名公)과 현사(賢士)들에게 말했던 것이다.⁶⁵⁾

이 날의 『미암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개임. 아침에 날씨가 차가워서 紗帽와 耳掩을 착용했다. 卯時末에 병을 아뢰고 집으로 돌아와 윤관중(尹寬中)을 보고 무안수재(務安守宰)가 말 2필을 도와줬음을 들었다.

○부인도 감기를 얻어 이미 4일째 이불을 끼고 누어있다.

○어제저녁에 만난 임예신(任禮臣)은 義新君의 외손이다. 예신의 어머니는 이제 나이 70인데 具監事의 대부인덕에서 뵈었다. 오늘은 병종(兵從)을 시켜 가마를 메우주게 했다.

○부인이 어제 工人을 시켜 毛冠, 耳掩, 貂袖를 만들었다. 모두 부인의 옷들이다.

…중략…

○ 書吏 최장손(崔長孫)이 왔다가 갔다.

○ 長湍府使 안홍(安鴻)이 城中에 왔다가 찾아왔고 承文院博士 이경(李璫)도 왔다가 갔다.

…중략…⁶⁶⁾

65) 傳 新及第者 四館目爲新來 侵虐汚辱 無所不至 以溝溷穢泥 塗其面目 名曰唐鄉粉 毀裂冠服 推轉於污水之中 作爲鬼形 人不忍見 傷身受病 比比有之 吐分不喻 其於體貌 虧損實多 此等弊俗之事 既無於禮文 又無於中國 而習以爲常 恬不知改 無識莫甚爲置 自今以後 新舊間糾檢事外 汚穢侵辱戲弄之事 一切痛革爲乎矣 如或仍踵舊習者 摘發治罪事下禮曹 ○新來侵虐汚傷之事 余前日屢言於名公賢士矣. 『眉巖先生集』 卷7, 1569년 9월 13일

66) 晴 朝以氣冷 著紗帽.耳掩 卯時末 辭疾歸家 見尹寬中 聞務安扶馬二匹 ○夫人感寒 今已四日 擁衾而臥 ○昨夕 任禮臣 乃義新君外孫也 禮臣母氏 今年七十 相見於具監司思孟大夫宅 今日遣丘從爲轎夫 ○夫人 昨日令工製毛冠.耳掩.貂袖 皆婦人之服也 …중략… ○書吏崔長孫來去 ○長湍府使安鴻 到城中來見 承文博士李璫來去 … 『眉巖日記』 冊3.

전교를 수록할 때에도 임금의 전교를 비롯하여 전교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수록하였지만 날씨가 추웠다는 내용, 부인이 아픈 내용, 유희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내용 등 유희춘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기사는 배제되었다. 이처럼 다른 전교의 내용이 있는 기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이 편집되었다.

다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관직에 임명되는 내용이 수록될 때를 살펴볼 것이다. 1572년 9월 20일에 유희춘이 藝文館 提學의 말망(末望)에 낙점 받은 기사이다.

【20일】이날의 인사 행정에서 희춘은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의 말망(末望)에 들어 낙점을 받았다. 이후백(李後白)·오상(吳祥)이 수망(首望)과 부망(副望)에 들었었다. 나에게 이 직책은 마치 귀머거리와 장님더러 오음(五音)을 듣게 하고 오색(五色)을 변별케 하는 격이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겁이 났다. 장차 소장을 올려 강력히 사양하여 기어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겠다.⁶⁷⁾

이 날의 『미암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일 개임. 아침에 奉常副奉事 康說이 수박 가지를 서리가 내린 뒤라서 올리기 어렵다는 牒紙를 예조에 낼 것을 물어보고 갔다.

- 부인이 婢에게 화를 내어 매를 때렸다.
- 오늘은 정사가 있고 내일은 朝講이 있다.
- 영광에 사는 光龍의 편지가 왔다.
- 광양의 무과 楊大樹가 와서 뵈었다. 鄭仁寬의 처남이다.

…중략…

- 이날 臺諫이 慶尙左水使 徐應千과 康津宰 邊自新을 논반하여 체직되고 또 奇大升을 병으로 논하여 大司諫이 됨을 遞差하고 朴承任을 右承旨를 삼았다
…68)

관직에 임명되는 기사가 수록될 때에도 부인에 관한 기사, 유희춘 자신의 일정에 관한 기사, 편지의 도착 등의 개인적인 기사는 배제되고 유희춘이 예문관 제학에 망

67) 二十日 是日有政 希春入藝文提學末望而受點 李後白, 吳祥入首副望 余之此職 猶使聾瞽聽五音辨五色 愴愴悚惶 將拜疏力辭 期於得釋重負. 『眉巖先生集』 卷9, 1572년 9월 20일

68) 晴 朝 奉常副奉事康說 以西瓜. 茄子霜後難供上事 牒呈禮曹 來稟而去 ○夫人怒婢而撻之 ○今日有政 明日有朝講 ○靈光居光龍書來 ○光陽武科楊大樹來謁 鄭仁寬之妻甥也 校正書 ○是日 臺諫駁遞慶尙左水使徐應千 康津宰邊自新 亦以病論遞 奇大升爲大諫 朴承任爲右承旨… 『眉巖日記』 冊7.

점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유희춘의 임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체직을 당하고, 병으로 인한 체차 등 관직임명과 관련된 기사가 일기에는 있지만 유희춘과 관련된 관직임명이 아니므로 문집에는 수록되지 못하였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올린 문서를 수록할 때를 살펴볼 것이다. 주로 수록된 문서는 상소이다.

1570년 5월 16일 유희춘의 사직단자(辭職單子)와 관련된 기사이다.

【16일】희춘이 사직단자(辭職單子)를 올려,

“신은 본래 잔약한 체질로써 간신히 부지하며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달 15일 신시에 본관(本館)에 있을 때 기운이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16일 아침에는 집안의 섬돌 위를 걸다가 마침 헛디더 추락하여 왼쪽 다리가 몹시 아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열흘 사이에 회복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경연의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신의 직책을 교체해 주시도록 연유를 갖춰 아뢰입니다.”하였다.

○ 대간(臺諫) 전원이 합동으로 대궐에 나가 아뢰었다. 대략 살펴보면, 을사년(1545), 정미년(1547), 기유년(1549) 등의 해에 죄 없이 죄를 당한 사람들을 모두 씻어주고, 이기(李芑)·정순붕(鄭順朋)·임백령(林百齡)·정언각(鄭彦愨)의 관작을 삭탈해야한다는 내용이였다.

○ 좌의정·우의정과 동·서벽(東西壁)이 다시 아뢰었다.

○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가 합동으로 아뢰었다.⁶⁹⁾

이 날의 『미암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일 개임. 아침에 權沃川이 물고기를 보내왔다.

○ 鄭鵬의 편지를 尹參判에게 보내 鄭家의 『資治通鑑』 16冊을 가져왔다. 崔尙重의 『資治通鑑』 7冊 이 빠져있어서 취해가고 나머지 9冊은 鄭鴻의 곳으로 돌려보냈다.

○ 어제 기운이 몹시 고달프고 정신이 혼미하더니 이제는 또 失足を 하여 왼쪽 다리가 시고 아픔으로 辭狀을 내려고 書寫官을 불렀더니 館中에서 入番을 한 사람이 書吏를 시켜 안부를 물어왔다.

69) 十六日 希春呈辭單子曰 臣本以孱弱之質 艱難支持 供職爲白如乎 今月十五日申時 在本館 氣甚困憊 精神昏眩 僅能歸舍 今十六日朝 家中階上行步 適音失足墜落 左脚痛楚 不能運身 旬日之間 勢未差復 經筵長官 不可久曠 臣矣職遞差事 詮次以善啓云云 ○臺諫全數合司詣 闕啓 大略乙巳丁未己酉等年 無辜被罪之人 一切伸雪 李芑, 鄭順朋, 林百齡及鄭彦愨追奪 官爵事也 ○左右相東西壁再啓 ○兩司合啓. 『眉巖先生集』 卷7 1570년 5월 16일

○ 金晉이 와서 인사를 했다.

○ 順天府使 李選이 부채를 보냈고 留鄉座首 張胄星 등이 부채와 빗을 보냈고 榮春이 버선을 보냈고 柳浹이 부채를 보내왔다.

○ 아침에 政院에 전교하시기를 “이 4명의 신하의 立言과 行실을 내가 보고 싶어서 玉堂으로 하여금 書帙을 하라고 했더니 수집을 해가지고 書一卷을 만들어 올리고 이제 이를 인출해서 頒賜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尙書해품을 알게 하고 겸하여 학자로 하여금 興起케하자고 하는데, 그 뜻은 지극히 좋으나 다만 이 사람들이 모두 先朝때에 禍患을 면하지 못하였고 그 중에 미안한 말도 많으니, 이를 인출해서 반사를 한다는 것이 혹 불가할지도 모르는데 어떠한가?”하셨다.
……70)

5월 16일에 기록된 『미암일기』의 내용은 물고기, 부채 등 여러 물건을 받은 내용과 사람들의 방문을 기록한 개인적인 내용과 유희춘이 병으로 인한 사직문서를 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의 교훈이 될 만한 말, 행실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인출하는 것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전교와 신하들의 답변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문집에 수록된 내용은 유희춘의 사직단자와 신하들이 아뢰는 상황만을 뽑아서 수록하였다.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수록되었고 개인적인 일은 수록에서 배제되었다.

다음으로 업무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조보를 보고 조보의 내용을 수록한 기사를 살펴볼 것이다. 1570년 9월 10일에 9일의 조보를 본 기사이다.

【10일】어제의 조보(朝報)를 보니,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서부의 용산(龍山) 아래 공덕리에 사는 충순위(忠順衛) 김일례(金逸禮)의 집에 지난 8월 15일 오시에 하늘이 흐리고 비가 뿌리는 중에 어떤 물건이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쟁그랑하는 소리가 나므로 취하여 보니 검은 돌 한 조각인데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어 매우 괴이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서부(西部)를 통해

70) 五月小 十六日

晴 朝 權沃川詠送魚來 ○以鄭鵬簡 送于尹叅判毅中 得鄭家資治十六冊來 以崔尙重資治之闕取七冊 其九冊不用 還送于鄭鴻處 ○以昨日氣甚困憊 精神昏眩 今又失足 左腳酸痛 欲呈辭 召書寫官 館中入番 遣書吏存問 ○金晉來謁 ○順天府使李選 送扇子 留鄉座首張胄星等 送扇梳 榮春送足巾 柳浹送扇來 ○朝 傳于政院曰 茲四臣立言行己 予欲覽閱 令玉堂書啓 則蒐輯爲啓書一卷以進矣 今欲印出頒賜 使人知予尙尙 兼使學者興起 其意至矣 第念此人 皆在先朝 未免禍患 其間多有未安之語 至於印出頒賜或不可 何如… 『眉巖日記』 冊5.

바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한성부에서 입계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돌이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이미 괴상하고 허망하건만 글씨도 쓰여 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하였다.⁷¹⁾

이 날의 『미암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10일 흐리다. 새벽에 海成이 하직하고 갔다.

○ 權沃川이 계절 10개를 보내왔다.

○ 내일 奴馬를 보낼 참인데 의복을 洪 荒의 두 농에 넣어 必同더러 받게 하고 서책을 담은 天 地 두 농을 波擲더러 받게 하고 玄字농에 담은 서책은 昌平人이 받게 할 참이다.

○ 이때에 太白이 여러 번 하늘에 뻗었다.……⁷²⁾

9월 10일에 기록된 일기의 내용은 여러 물건의 수납과 보관에 대한 내용, 날씨에 대한 내용, 방문자에 대한 내용과 조보를 보고 알 수 있는 전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집에 수록된 내용은 조보를 본 내용만을 수록하였다.

위와 같이 강론이나 경연, 전교 등 관직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 문집에 수록되는 첫 번째 내용이다. 가장 먼저 채택되는 내용인 만큼 문집에 수록되는 양도 가장 많다. 이러한 정사에 참여하고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기사 외에 저술에 관한 기사도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2) 저술활동과 관련된 내용

유희춘의 저술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관직생활을 하면서 맡은 업무가 아닌 자신의 저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자신의 작품을 저술하거나 남의 저

71) 初十日 見昨日朝報 漢城府啓 西部龍山下孔德里居忠順衛金逸禮家 去八月十五日午時 天陰灑雨 有物自空而下 鏗然有聲 取見則黑石一片 內外面有書字 至爲怪異 同石持來 自部進告云云 傳曰 觀此漢城府入啓 有石自空而下云者 已爲怪誕 而至於書字 寧有是理 未可信也 『眉巖先生集』 卷8 1570년 9월 10일.

72) 九月小 初十日

陰 晨 海成辭去 ○權沃川詠送蟹醢十介來 ○以明送奴馬 衣服入洪荒二籠 必同受之 書冊入天地二籠 波擲應受之 玄字籠入書冊 昌平人受之

○是時 太白屢經天…『眉巖日記』 冊5.

술을 교정하는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은 유희춘이 저술한 시를 일기에서 뽑아서 문집에 수록한 기사이다.

幼荷父獎 / 어려서는 부친의 칭찬을 받고
晚蒙君詔 / 만년엔 임금의 말씀 들었는데
論說古今 / 고금을 논설하는 것이
出人意表 /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네 73)

위 시는 유희춘이 아버지 유계린(柳桂鄰, 1478~1528)의 일기에 기록된古今의 논설에 대한 칭찬과 主上이 올해 내린古今에 대한 논설을 칭찬하는 글이 서로 부합됨에 감격하여 지은 시이다.

유희춘이 지은 시를 선별하여 수록한 것은 자신의 고금에 대한 논설이 아버지와 임금에게 칭찬받을 만큼 학술적으로 우수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문집은 저자의 작품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형태와 부합되는 요건을 갖추어서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유희춘이 서적을 만드는 내용과 관련된 기사이다. 1570년 9월 29일의 기사이다.

【29일】희춘이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의 <계고록표(稽古錄表)>,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와 <초령익주목발교(初領益州牧發教)>, 육지(陸贄)의 주 의(奏議), 주자(朱子)의 봉사(封事)와 차(筭)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 『헌근록(獻芹錄)』이란 이름을 붙여 올릴까 했는데, 동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 옥당에서 책을 빌려 『헌근록』에 뽑아 넣을 자료를 찾기로 했다.⁷⁴⁾

이 날의 기사를 『미암일기』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일 개임. 파루시각에 일어나 5更4點에 迎秋門의 밖 軍鋪로 가니 左副承旨 俞公

과 右副承旨 君貞이 따라와서 잠시 담화를 했다.

○ 이른 아침에 禮房으로서 時服을 입고 각 陵殿, 文廟, 厲壇에 향을 전했다.

73) 『眉巖先生集』 卷9, 1571년 5월 22일.

74) 二十九日 希春欲以溫公稽古錄表, 諸葛亮出師表及初領益州牧發教, 陸贄奏議, 朱子封事及筭爲一卷 名曰獻芹錄而進之 同僚亦以爲可 ○借書于玉堂 以爲獻芹錄採摭之資 『眉巖先生集』 卷8, 1570년 9월 29일.

- 李精을 불러 붓, 먹을 주어 『獻芹錄』을 쓰게 했다.
- 觀象監提調 元混에게 白紙 1권을 청했다.
- 文昭殿 參奉이 酪粥 한 그릇을 보내왔다. 내가 提調이기 때문이다.
- 梧石이 水原에서 왔는데 朴東豪가 燈油 3升과 계 20개를 보내왔다.⁷⁵⁾

문집에 수록된 9월 29일의 기사는 『헌근록』의 바탕이 되는 저술들과 이름을 정하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 날에는 『헌근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李精을 불러서 쓰게 한 내용은 수록되지 못하였다. 또한, 禮房으로 향을 올리는 업무도 수록에는 배제되었다. 이 날의 초점은 『헌근록』이라는 제목을 정한 상황에 맞춰져있어 글을 쓰는 행동이나 업무 등도 개인적인 일을 적은 내용들과 같이 문집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책을 편찬하는 기사와 더불어 책을 교정하는 기사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1573년(선조 6) 6월 28일의 기사이다.

【28일】『朱子大全』 44권을 교정하였다.

- 서적을 펼쳐볼 때마다 소견이 용솟음쳐 오르지만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⁷⁶⁾

이 날의 『미암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일 비가 오다. 나와 부인의 꿈이 모두 길조이다.

- 이조에서 關字가 왔는데 오는 7월 2일에 의정부가 誓戒를 하고 5일에 儀節을 연습하고 9일에 종묘의 秋享을 지낸다고 했으며 2일에 예조도 誓戒를 하고 5일에 儀節을 연습하고 8일에 香을 받고 9일에 永寧殿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終獻官을 曹의 參判 柳某로 미리 선출했다고 했다.

- 東籍田에서 薦新을 封하고 나온 黍米, 粟米 각 1斗가 왔다...⁷⁷⁾

75) 九月小 二十九日

晴 罷漏而起 五更四點 詣迎秋門外軍鋪 左副俞公泓.右副君貞李忠綽 隨至暫話 ○早朝 以禮房著時服 傳香于各陵殿.文廟.厲壇 ○招李精 授筆墨 使書獻芹錄 ○乞白紙一卷于觀象監提調元公混 ○文昭殿參奉 送酪粥一器來 以余提調故也 ○梧石 自水原來 朴東豪送燈油三升.蟹二十介來 『眉巖日記』 冊5.

76) 二十八日 校朱全 至四十四卷 ○每披書籍 所見湧出 不勝筭記. 『眉巖先生集』, 卷10, 1573년 6월 28일.

이 날도 앞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과 쌀을 받는 내용도 일기에 기록이 되어있지만 『주자대전』을 교정하고 그 느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이렇게 저술활동에 대한 기사도 많이 수록되었다.

저술활동에 대한 기사가 관직생활과 관련된 기사만큼이나 많이 수록된 것은 유희춘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보이고 『續蒙求』, 『朱子語類箋解』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또한, 일기에 자신의 저술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되는 기사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공적인 활동인 관직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저자의 작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일상적인 내용도 문집에 수록되었다.

3) 개인적인 활동과 관련된 내용

문집에 수록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직활동이나 작품이나 글에 대한 기록을 위주로 선별하게 된다. 그러나 『미암일기』는 저자의 일상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될 때도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다음의 기사는 『미암일기』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기사로 일기의 날짜 다음 기록된 그 날의 날씨에 대해서는 문집에 수록하지 않았지만 기사내용 가운데 그 날의 날씨에 대한 기사들이다.

㉠ …중략… 장마가 개어 기쁘다. 저녁 무렵의 종소리가 유난히 맑았다. 78)

㉡ 어제 오늘 이틀간에 매우 더웠다. …79)

㉢ …중략… 巳時부터 비가 크게 내리니 백성의 기쁨이 한이 없었다.80)

77) 六月大 二十八日

雨 余與夫人之夢 皆大吉 ○吏曹關字來 來七月初二日 議政府誓戒 初五日肆儀 初九日行□□宗廟秋享大祭 初二日禮曹誓戒 初五日肆儀 初八日受香 初九日永寧殿同祭 終獻官預差曹參判柳云云○東籍田薦新封餘黍米.粟米各一斗來… 『眉巖日記』 冊8.

78) ○積雨喜晴 夕 鐘聲清亮 『眉巖先生集』, 卷7, 1570년 6월 20일

79) ○昨今兩日大熱 『眉巖先生集』, 卷7., 1570년 6월 22일

80) ○自巳時 雨天下 興喜何極 『眉巖先生集』, 卷11. 1574년 6월 2일

위와 같이 날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록한 것이다. 다음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다.

㉑【7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일기 8책을 보았다. 비감을 금할 수가 없다.
○ 형님의 을해년(1515, 중종10) 일기를 보니 역시 슬픈 생각이 든다.⁸¹⁾

㉒【20일】들으니, 右議政 閔箕가 18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놀랍고 슬프기 한이 없다. 하늘은 어찌하여 楊綰을 이토록 빨리 빼앗아 가는가?⁸²⁾

㉓○ 李效元이 와서 만났다. 곧, 신유년(1561, 명종16)과 임술년(1562)에 鐘城에서 만나 나에게 글을 배웠으니, 바로 李鐘城의 아들 仁龍이다. 만나 보니 몹시 반가웠다.⁸³⁾

㉔○ 大司諫 朴謹元 一初 (박근원의 자)가 찾아왔는데, 을유년(1525년, 중종20)생으로 故 全州判官 蘋의 아들이다. 기질이 아름답고 행실이 고상하며 학식도 순수하니 당대의 제일 인물이다. 갑진년(1544, 중종39) 전주 판관의 자제로 있을 때에 이미 禪雲都會의 풍문을 듣고서 사모하고 좋아했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빈 배처럼 마음을 비우고 서로 마주하여 속을 털어놓고 보니 이른바 한번 봄에 오랜 친구와 같은지라 늦게 알게 된 것을 서로 한스러워했다.⁸⁴⁾

㉑는 유희춘이 아버지와 형의 남겨진 일기를 읽다가 느낀 감정이며, ㉒는 右議政 閔箕의 죽음을 애도하는 감정이며, ㉓와 ㉔는 만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감정들은 유희춘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대상이 남긴 물건, 소식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편집할 때 문집에 수록되는 기사로 채택된 거 같다.

다음은 개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기사이다.

81) 初七日 ○伏睹先君日記八冊 不勝悲感 ○見伯氏乙亥日記 亦爲感愴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7일

82) 二十日 聞右議政閔箕以十八日卒捐館云 驚悼無已 天何奪楊綰之速也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20일

83) 二十五日 ○李效元來見 乃辛酉壬戌 相見於鐘城而受業於余 卽李鐘城之子仁龍也 相見喜甚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25일

84) 二十八日 ○大司諫朴公謹元一初來訪 年乙酉生 而故全州判官蘋之子也 質美而行高 學識純粹 當今第一人物也 甲辰年爲全州判官時 已聞禪雲都會之風而慕悅矣 今茲相遇 虛舟相對 輸寫腑臟 所謂一見如舊 恨相知之晚也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28일

【12일】長城 菩提洞 김 교리의 집에서 잤다.⁸⁵⁾

【13일】아침을 먹은 후 문을 나서서 2리쯤 가다가 교리 金麟厚의 묘에 奠 드리고, 제문은 奇孝諫에게 읽게 하였다. 다시 김인후 덕으로 가 말 위에서 繼文과 興文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떠났다. 낮에 장성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 녘에 정읍에 당도했다.⁸⁶⁾

위 기사들은 유희춘이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에 대한 내용이다. 유희춘은 새해를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장성을 들러 사돈인 김인후의 묘에 배향하고 정읍에 도착하였다.

위의 개인적인 감정이 나타난 기사와 일상생활의 이동경로와 같은 개인적인 기사가 한 달간 문집에 수록되는 기사의 수 10건 내외의 날짜에 수록된다. 이는 선조의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문집의 성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저자의 감정이나 생활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수록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저자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상으로 『미암선생집』에 수록된 『미암일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문집에 가장 많이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관직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며, 다음으로 학술적인 면모가 많은 저자의 문집답게 저술활동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한 달에 10건 내외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록하였다.

85) 十二日 宿長城菩提洞金校理家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12일

86) 十三日 朝飯後 余出門 詣二里許金校理厚之墓致奠 有祭文 令奇孝諫讀之 遂重過校理宅 再於馬上 見繼文興文 捫其額而行 午入長城 日將暮 到井邑 『眉巖先生集』, 卷5. 1569년 1월 13일

IV. 문집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편집양상

『미암일기』의 기사들은 『미암선생집』에 수록될 때 원문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수록되지 않았다. 일기의 형식과 문집에 수록된 일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형식은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기에서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과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문집 수록 시 날짜 형식

『미암일기』의 년도와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은 해당하는 년, 월을 일기 내용을 기록하는 글자의 크기보다는 크게 시작하는 지점에 쓰고 1일의 해당하는 간지 등을 아래에 적고 내용의 시작은 다음 줄부터 써내려간다. 반면에 문집은 ‘日記’를 적고 ‘刪節 ○上經_筵日記別編’이라는 문구를 적는다. 그 다음으로 시작하는 년을 적고 주석으로 그 해의 중국 년호와 조선의 묘호를 적는다. 그리고 월은 일기와는 다르게 해당 월의 첫 기사가 끝나는 지점에 주석으로 해당하는 월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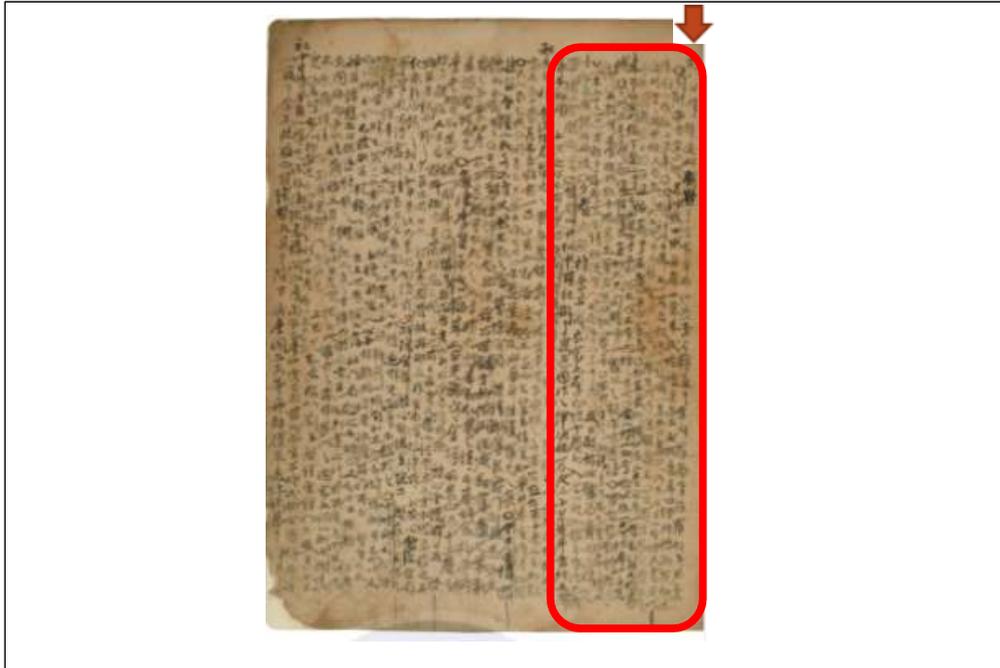
일기에서 문집에 수록할 때 정해진 형식은 날짜의 기록뿐이고 다른 변화는 일기 기사를 문집에 수록하면서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이다. 개인이 일기를 기록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행·초서체로 쓰여 있는 일기들이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기를 보았을 때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현상을 편집상의 오류, 글자·문장의 수정 및 삭제, 기사의 재구성, 내용 추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편집상의 오류

편집상의 오류란 일기의 기록을 변화 없이 수록하려고 하였으나 문집에 수록할 때 편집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이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와 다르게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수록한 내용의 편집변화가 아닌 수록할 때의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잘못된 날짜표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상의 오류는 총 14건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p><u>初八日</u> …중략… ○伏觀 初六日夜 上以備忘記傳曰 自頃 以來 太白晝見 乃於今日 以至經天晝見 此實非常之變 而經天尤變之大者也 予 不勝驚懼之至…중략…</p>	<p><u>初七日</u> 伏睹 初六日夜 上以備忘記傳曰 自頃日以來 太白晝見 乃於今日 以至經 天晝見 此實非常之變 而經天尤變之大 者 不勝驚懼之至</p>
<p>『미암일기』 冊4</p>	<p>『미암선생집』 卷7</p>

그림 IV-2 편집상의 오류 - 1

위 기사는 비망기(備忘記)로 내려진 전교의 내용으로 근래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고 하늘에 뻗치는 것⁸⁷⁾을 보고 큰 변고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이 기사가 일기에는 1569년(선조 2) 6월 초8일로 기록되어있으나, 문집으로 수록하면서 초7일로 잘못 기록된 채로 수록되었다. 이는 문집 수록과정 상의 실수로

87) 재이(災異)의 전조를 뜻하며, 『漢書』 「天文志」에서 “태백이 경천하면 혁명이 일어나 백성들이 왕을 바꾸게 되는데 이를 ‘난기’라고 하며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 낮에 보이고 해와 밝음을 다투다면 강국은 약해지고 소국이 강해질 것이며 여주가 창성할 것이다.(太白經天 天下革 民更王 是爲亂紀 人民流亡 晝見與日爭明 疆國弱 小國彊 女主昌)”라고 하였다.

인한 오류이다.

다음은 기사를 수록할 때 2개의 날짜로 기록된 것을 수록할 때 나누어서 편집하지 않고 하루에 합쳐서 기록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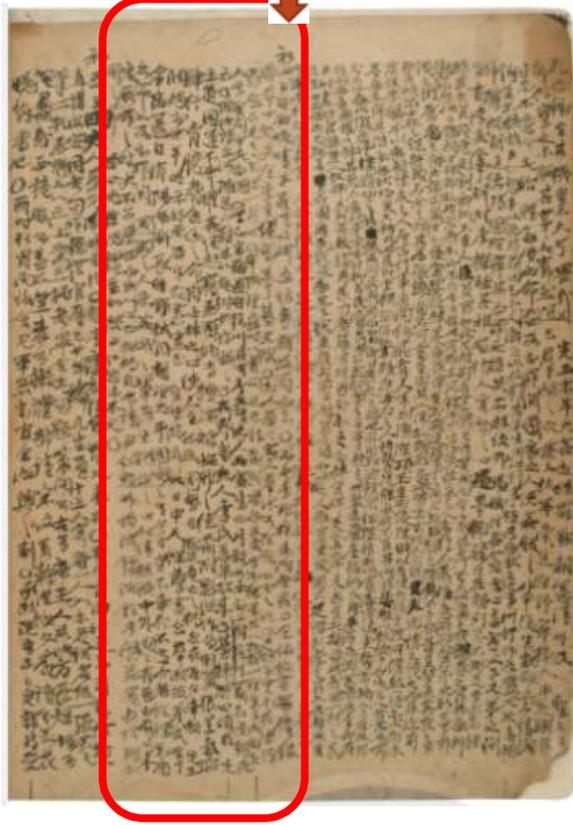
	
<p><u>初四日</u> …중략… ○辛校理應時 以書問近思錄觀物察物出處 余不能對 只以物我一理 朱子所釋在大學或問中者 爲說…</p>	<p><u>初三日</u> …중략… ○辛校理應時以書問近思錄觀物察已出處 余不能對 只以物我一理朱子所釋在大學或問中者爲說. 初五日</p>
『미암일기』 冊3	『미암선생집』 卷7

그림 IV-3 편집상의 오류 - 2

위는 1569년(선조 2) 閏6월 4일의 기사이다. 校理 辛應時가 보낸 편지를 답하는

내용을 적은 기사이다. 일기에 기록된 날짜는 4일에 기록이 되어있으나 문집에 수록하는 편집과정에서 4일을 표기하지 않고 3일의 기사의 마지막 기사로 수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己’를 추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의 날짜를 잘못 적거나 기사의 해당 날짜가 아닌 다른 기사에 수록된 것은 문집을 옮기는 과정상에서 편집자의 의중이 들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편집과정 상에서의 신경을 쓰지 못하여 실수로 인한 단순한 오류이다. 모든 문집을 편찬하고 간행하는 과정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다보니 발생하는 변화양상인 것이다.

2.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앞서 문집의 수록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일기의 개인적인 기사들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글자와 문장의 수정 및 삭제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기에 기록되어있는 많은 기사들을 문집의 목적성에 알맞게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는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루어지는데 편집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p>畢 趙君㉔繕寫點節 遂輿覽以入 大概㉕ 希春授意者也 ㉖日暮歸舍 〇夕 鎮川李 文學內室李氏遣奴 持謝救單㉗字來 其 略曰 自家翁死後 窮居村野 聊生艱苦 養子養孫 相繼而沒 喪葬措辦 家儲掃蕩 貧寒轉極 支保末由之際 特蒙令恩 轉達 于上 官給食物 至今不廢 非徒女常㉘讚 祝 家翁亡靈 亦必冥感云云 ㉙問其奴 則自己巳年有旨書狀後監司分定忠州·鎮 安二官 以月致食物 忠富也 故界二朔 鎮川差貧 故界一朔 相爲循環 每朔白米 六斗· 醬一斗·鹽二斗魚醢一斗式例送 云云 李氏送大棗一斗·薏苡一斗·苦蕒來 〇金彦鳳寫孫真人養生書來 〇奉常寺送柴木十同來 乃李士文諷余之 力也 …중략… 〇此上教精密切至 不勝嘆伏 ㉚〇天使只據古禮 欲爲主東客西之入其 實天使自南向北而入 故以西爲左也 到 殿上 却依東壁而立 ㉛〇我國據大明會典 以詔使東而國王西 爲請 …중략…</p>	<p>寫點節 遂輿覽以入 大概㉕余授意者也 〇鎮川李文學內室李氏遣奴持謝救單 ㉗子來 其略曰 自家翁死後 窮居村野 聊生艱苦 養子養孫 相繼而沒 喪葬措辦 家儲掃蕩 貧寒轉極 支保末由之際 特蒙 令恩 轉達于上 官給食物 至今不廢 非 徒女常㉘讚祝 家翁亡靈 亦必冥感云… 중략…此上教精密切至 不勝歎伏 ㉚〇 天使只據古禮 欲爲主東客西之入 我國 據大明會典 以詔使東而國王西爲請</p>
<p>『미암일기』 冊7</p>	<p>『미암선생집』 卷9</p>

그림 IV-4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 1

위 기사는 1572년(선조 5) 10월 25일의 기사로 글자와 문자의 수정 및 삭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글자의 수정을 살펴보면 ㉔繕 → ㉔善, ㉕希春 → ㉕余, ㉗字 → ㉗子, ㉘讚 → ㉘讚 으로의 글자 수정이 이루어졌다. 글자 수정의 대부분은 유사한 글자끼리의 변화로 내용상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㉕에서 ㉕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저자에 대한 지칭의 변화로 발생한 글자의 수정이다.

그리고 ㉙, ㉚, ㉛과 같은 경우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문집에 수록하

면서 불필요한 글자와 문장을 삭제한 것이다. ㉗의 사례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기에서 문집으로 변화되는 양상으로 일기의 그 날의 날씨를 문집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㉘과 ㉙은 편집자에 의하여 문집 수록 시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삭제된 글자와 문장이다.

마지막으로 일기의 ㉘과 ㉙의 문장은 문집에 ㉘문장으로 2가지의 사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수록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의 ‘其實天使~東壁而立’까지를 수록에 필요하지 않은 문장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을 이어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如麻 更退天使到迎詔門時刻于未.申 間 坤時 百官皆以雨具迎詔勅迎詔勅 至勤政殿…중략…	
『미암일기』 冊1	『미암선생집』 卷5

그림 IV-5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2

위 기사는 1568년(선조 1) 2월 27일 기사로 일기의 ‘雨而還止~故不敢白而還’이라는 긴 문장을 요약하여 ‘天使來’ 세 글자로 문집에 수록한 것이다. 편집자의 생각으로 일기의 문장에서는 天使 즉, 중국사신이 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오는 여정은 문집에 수록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567년(명종 22) 12월 7일 기사가 있다.



<p>得軍人一百廿一名 作池于牟木墓前 廣二引.長十引.高中心一丈半 外築石 城 一日而畢 尹生員宅奴廿一名.朴水 使宅奴十六名.吾家奴八名.吳宅奴十 一名.李惟秀奴五名 尤爲優優</p>	
『미암일기』 冊1	『미암선생집』 卷5

그림 IV-6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3

위 기사는 1567년(명종 22) 12월 7일 기사이다. 묘 앞에 연못을 만드는 일로 인부로 쓸 사람을 군인을 비롯하여 여러 곳의 노비를 모았다는 내용이다. 일기에서는 노비들을 내어준 명 수까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문집에서는 ‘始役’ 두 글자를 써서 ‘여러 곳에서 인부를 구하여 부역을 시작했다.’로 변화하여 수록하였다.

다음은 위와는 반대인 문장의 수정방법으로 함축해놓은 문장을 풀어서 서술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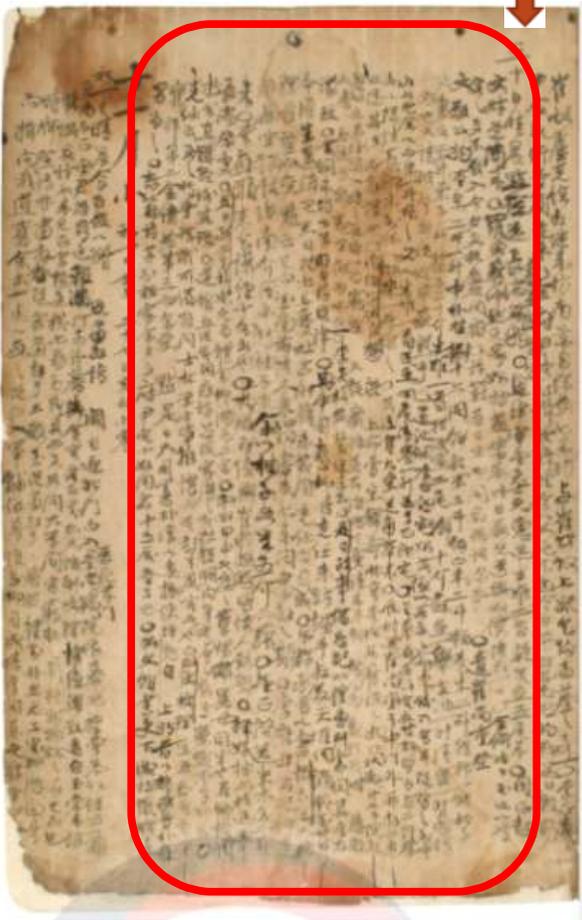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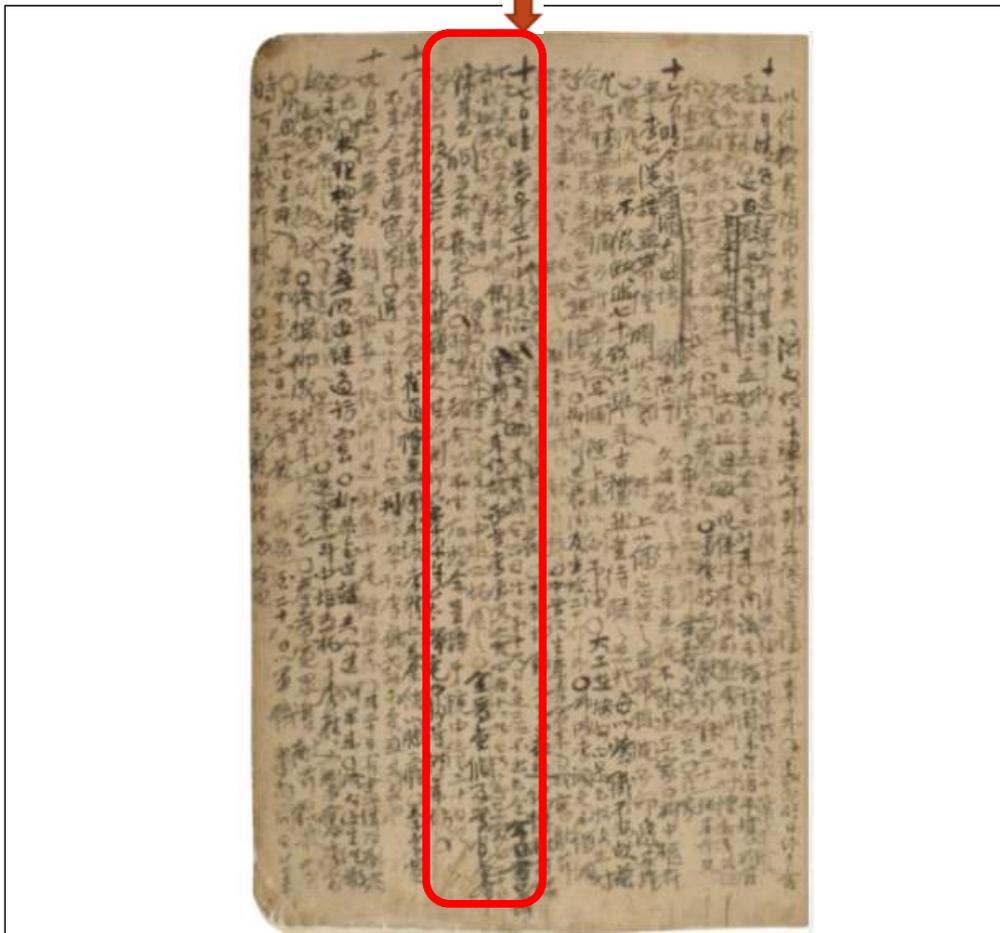
	
<p>三十日 …중략… ○辰時 送崔尙重于中門外 再拜而遣之 隨其後而拜 禮也 …중략… 『미암일기』 冊1</p>	<p>三十日 送崔尙重往祭于驪州 金文敬公 慕齋先生之廟於中門外 再拜而遣之 隨其後而拜 禮也 …중략… 『미암선생집』 卷5</p>

그림 IV-7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4

위 기사는 1567년(명종 22) 10월 30일 기사로 崔尙重이 유희춘을 방문한 기록이다. 일기의 기록에는 ‘于’ 한 글자로 표시되어있으나 문집 수록 시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기의 작성 시 ‘于’ 한 글자만 적어도 저자가 알아볼 수 있었으나 문집에 수록할 때는 문집을 볼 사람들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

므로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한 듯하다.

문장을 함축하거나 풀어서 서술한 경우 외에 2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편집한 경우도 있다.



十月大 十七日

晴 夢身在水中浸浴 ①○史奇彦卿來言
 都令公自昨日至十九日 連忌不出云 余
今日書呈辭 不仕進矣 ○秦孝寬 來寫錄
 草 ○掌務吏來傳都承旨李季眞後白之言
 曰 吾十八九日 乃以忌在家 必二十日齊
 坐 然後乃可捧呈辭入啓云 ○朴參軍允

十七日 余今日書呈辭 不仕進 政院以都
 令公②連忌不坐故 留余呈辭于院中.

秀來去 以中炬四柄周之 ○金晉.金僑及 學官金希鍊來去 僑 吾所喜見者也 ②○ <u>政院以都令公不坐 故留余呈辭于院中</u> 待二十日 乃入啓云 ○頃日 送大炬于柳 世麟夫人.洪公淵.柳公景深.許公太輝暉 宅 ○權得卿詠來訪	
『미암일기』 冊5	『미암선생집』 卷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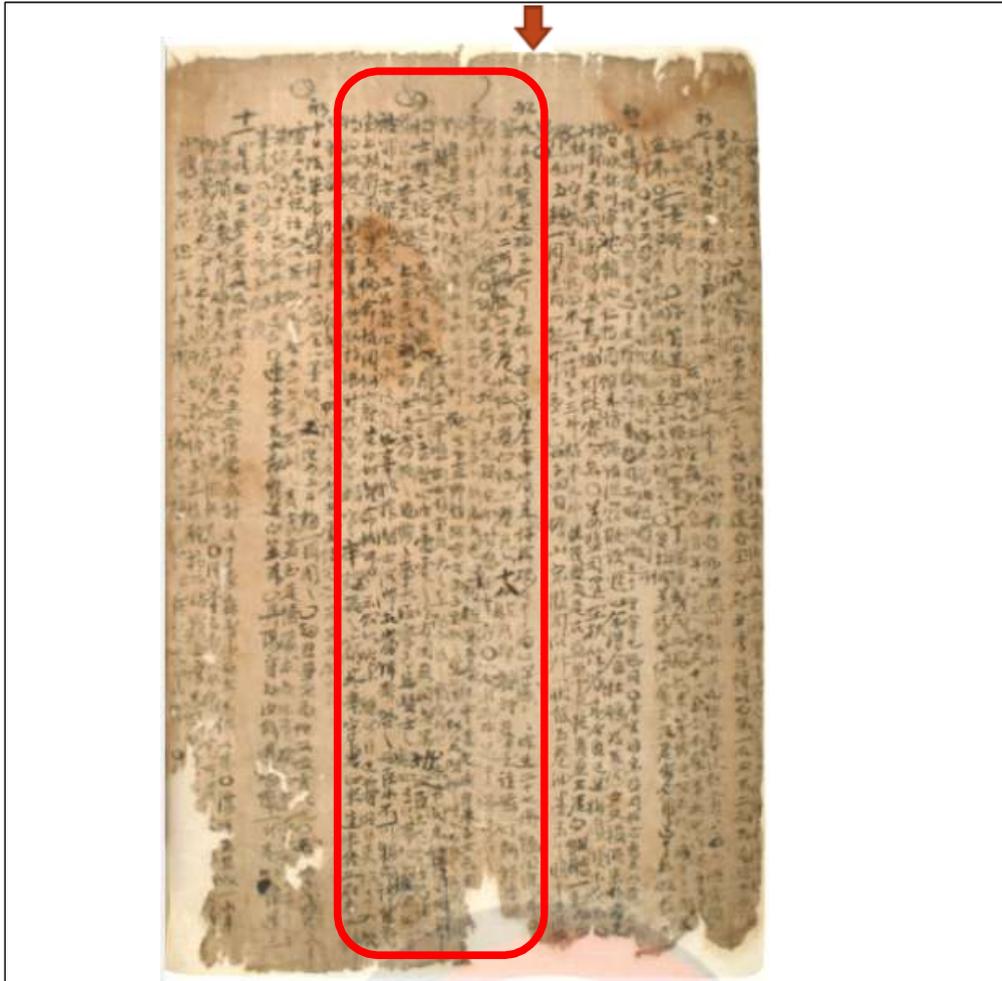
그림 IV-8 글자 · 문장 수정 및 삭제 5

위 기사는 1570년(선조 3) 10월 17일의 기사이다. 일기에 기록된 17일 기사 가운데 ①과 ②의 밑줄 친 부분만을 뽑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만을 추가하여 문장을 재편집 하였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글자 · 문장의 수정 및 삭제는 하나의 글자를 바꾸거나 문장을 필요한 내용에 맞게 요약, 풀이, 합치는 방법으로 수정 및 삭제하였다. 수정 및 삭제는 문집을 편집할 때 가장 기본적인 편집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되기 때문이다. 발췌하는 방식이 끝나면 이어지는 과정으로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의 재구성이 있다.

3. 기사의 재구성

기사의 재구성은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일기에 기록된 순서와 다르게 문집에 수록된 것을 의미한다.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 날의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을 수록할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기에 기록되는 순서는 대부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문집에 수록될 때 어떠한 이유로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재구성하는 변화양상은 총 21건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初九日

…중략…

①○光霽 計朱子實紀諸弟子凡三百十九人 眞西山私淑者也 ②○竊觀朱子實紀中黃勉齋察朱子文云 自□□夫子之□繼作集累聖之大成 其知生知 其行安行 觀此則直卿獨能昌言朱子生知之聖 而後人猶以大賢稱之 吁亦不明之甚矣 陳安卿之贊文 以學知利行之亞聖稱之 其後卒以卒主盟斯世歸重 是失之東隅而收之桑榆者也 ③○朱希閔來結冊 ④○夕 校書博士權大德 送奴過傳朝報 今月初五日

初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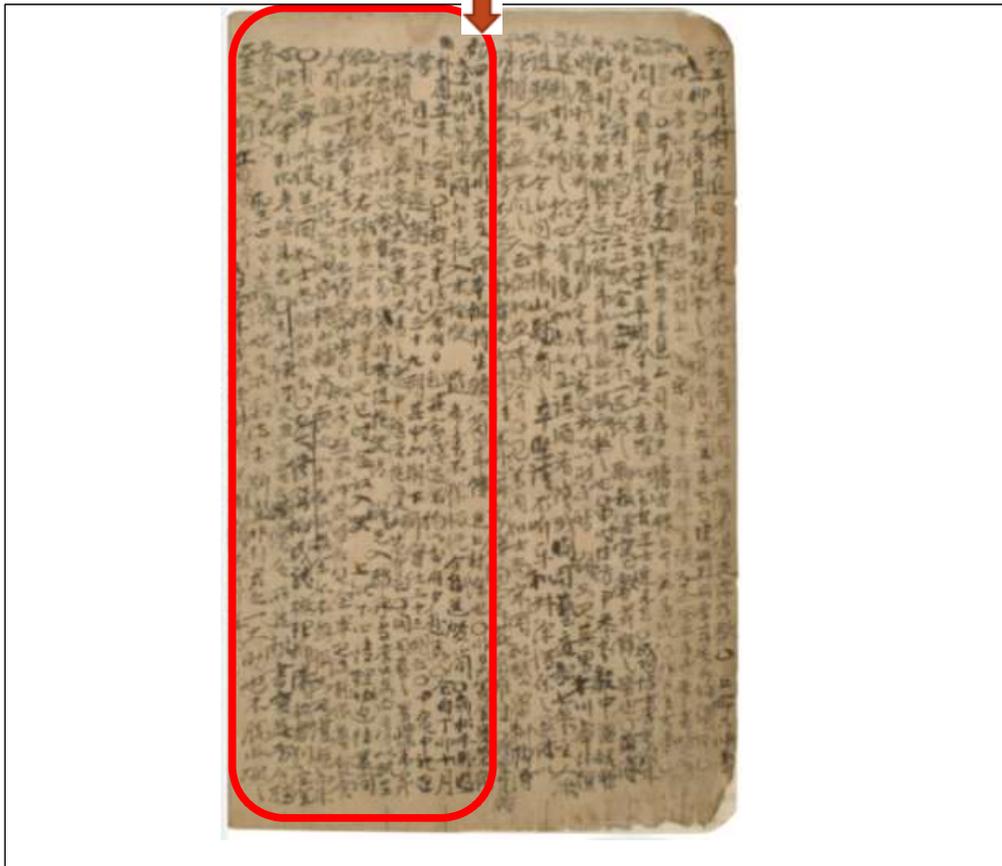
④校書博士權大德 送奴過傳朝報 今月初五日 三公啓曰 昨日雷霆之作 有同夏月 災異切迫 臣等尤爲惶恐 請斥罷臣等以答天譴 慈殿曰 新上卽位後 當施恩典之事 大臣察爲 且賢士之類如有沈滯者 擢用 無辜被罪者 亦可伸冤 三公啓曰 今承傳教 無辜被罪 賢士沈滯者 當詳考以啓而臣等不可獨爲 請禁府堂上政府東西壁大卿 命招同議以啓 答曰 如啓命招可也 三公六卿等啓 今日已暮 明日更議何如 傳曰 如啓 ⑤○令光霽計朱子實記

<p>三公啓曰 昨日雷電之作 有同夏月 變異切迫 臣等尤爲惶恐 請斥罷臣等 以答天譴 上答三公曰 新上卽位後 當施之恩典之事 大臣察爲 且賢士之類 如有沈滯者 則擢用 無辜被罪者 亦察伸冤…중략…</p>	<p>諸弟子 凡三百十九人 眞西山 私淑者也 ◎○竊睹朱子實記中黃勉齋祭朱文公文云 自夫子之繼作 集累聖之大成 其知生知 其行安行 觀此則直卿獨能倡言朱子生知之聖 而後人猶以大賢稱之 吁 亦不明之甚矣 陳安卿之贊文 以學知利行之亞聖稱之 其後卒以主盟斯世歸重 是失之東隅 而收之桑榆者也</p>
<p>『미암일기』 冊1</p>	<p>『미암선생집』 卷5</p>

그림 IV-9 기사의 재구성 - 1

위 기사는 1567년(명종 22) 10월 9일의 기사이다. 『미암일기』에 기록된 이 날의 기사는 『朱子實記』에 나오는 제자의 수를 세어보는 기사, 『朱子實記』를 살펴본 기사, 朱希閔이 온 내용, 조보를 본 내용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미암선생집』에 기록된 순서는 저녁에 일어난 사건인 조보를 본 내용이 ④번의 위치에서 ㉠의 위치로 시간을 나타내는 ‘夕’자를 삭제하고 가장 먼저 9일의 기사로 수록되고 다음으로 『주자실기』와 관련된 내용인 ①번과 ②번이 ㉠와 ㉡로 이어서 기록되었다. 방문기록인 ③번은 삭제되어 문집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더 살펴보면 다음의 기사가 있다.



十一月小 初四日

…중략…

①○余自丁卯宣祖卽位年十月蒙恩拜官還朝 至今凡三十九朔 其中六朔下鄉 實仕三十三朔云 ②○尹寬中 馳逐畋獵 作一羸豪武夫 致遠尹毅中公大責之 寬中慙悟 抱冊入大茆寺云 ○閔司藝德鳳之男**來見 乃宋君庭筍之壻也 潭書亦到 ③○辰時食後 抱疏詣闕 先入都承旨李公後白房 以疏呈之 左承旨宋公賀 右承旨俞公絳泓 皆來見 巳時 僉議入疏 上批下曰 情理切迫 往還間給由事 下兵曹李承旨忠綽 安承旨自裕 李應教仲虎 皆

初四日 ①余自丁卯十月蒙恩拜官還朝 至今三十九朔 其中六朔下鄉 實仕三十三朔云 ②○食後 抱疏詣闕 上批下曰 情理切迫 往還間給由事 下兵曹 ③○尹寬中馳逐畋獵 作一羸豪武夫 致遠公大責之 寬中慙悟 抱冊入大茆寺云 ④○朴大諫謹元復余書云 謹審令公所進獻芹錄 實是方今輔導之大法 而聖心深嘉獎諭 必有所取法於斯 豈非引君之一大助也 不勝欣賀之至云

<p>相見 余畢見後就依幕 食舍人司點心 遂往藏義洞辛槐山輔商喪次 以未成服 故余亦不變服 只見護喪而來 ○朴三宰永俊.姜同知士尙 留刺而去 ○弘文修撰柳成龍.校理柳濤.校書別坐金田漑.叅軍朴伯彥允彥 皆來去 ④○朴大諫謹元 復余書云 謹審令所進獻書實是方今輔導之大法 而聖心深嘉獎諭 必有所取法於斯 豈非引君之一大助也 不勝欣賀之至云…</p>	
『미암일기』 冊5	『미암선생집』 卷8

그림 IV-10 기사의 재구성 2

위 기사는 1570년(선조 3) 11월 4일의 기사이다. 문집에 수록된 기사의 내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관직생활을 한 일수를 계산한 내용, 비답의 내용, 尹寬中과 관련된 내용, 朴謹元의 편지 내용이 수록되었다.

일기에 기록된 순서는 ① → ② → ③ → ④의 순서지만 문집에 수록될 때는 ① → ㉠, ② → ㉡, ③ → ㉢, ④ → ㉣의 순서로 바뀌어 수록되었다.

이 기사에서도 앞의 1567년(명종 22) 10월 9일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수록하였다.

위와 같이 기사를 재구성한 것은 수록할 때 시간에 따른 순서보다는 기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공적인 기록인 관직생활과 저술활동 사이에서도 먼저 수록하는 순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내용 추가

내용 추가는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이 문집에 기록되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현전하는 일기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여 문집에만 남아있는 기사들로 인하여 일기의 내용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내용 추가의 편집방식은 아니다.

또한, 내용 추가의 방식은 문장을 편집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내용 추가가 된 기사는 총 7건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p>晴 朝 修狀上謝書于吏判朴公 ○朝 以冊校正一會 詣玉堂 見副校理辛應時君望.博士洪聖民時可談話 辛文學才德具全 於我族人 蓋柳沼.柳澥 我之玄祖 而辛亦然也 副提學姜公尙之士尙.典翰奇君明彥大升繼之 相與講論大學 互有所中 大槩吾說十中七八 與館中舊人懸吐 無不脗合 衆皆嘆服 余之見或有未到 而諸人得之 則余不執已見 惟是之從 同僚以從善如流 尤爲嘆服…중략…</p>	<p>之 相與講論大學 互有所中 大概吾說十中七八 與館中舊人懸吐 無不脗合 衆皆歎服 余之見或有未到 而諸人得之 則余不執己見 惟是之從 同僚以從善如流 尤爲歎伏矣 ⑤○吏曹判書朴永俊彥而來臨 相與道翰苑之舊 因誦韓詩曰 少年樂新知 衰暮思故友 朴公深以爲然 且約後日 會金獻納季應家 以冢宰之尊 降屈尊嚴 不忘故舊 可謂有古人之風.</p>
<p>『미암일기』 冊1</p>	<p>『미암선생집』 卷5</p>

그림 IV-11 내용 추가 1

위 기사는 1567년(명종 22) 11월 8일의 기사이다. 『미암일기』에는 姜士尙과 奇大升이 와서 대학을 강론한 내용인 ④가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미암선생집』에는 이조 판서인 朴彥이 와서 韓愈의 시를 외운 것을 보고 박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기사인 ⑤도 수록되어있다. 이는 일기에는 기록되어있지는 않지만 편집할 때에 일기를 보충할 만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이 내용이 추가된 다른 기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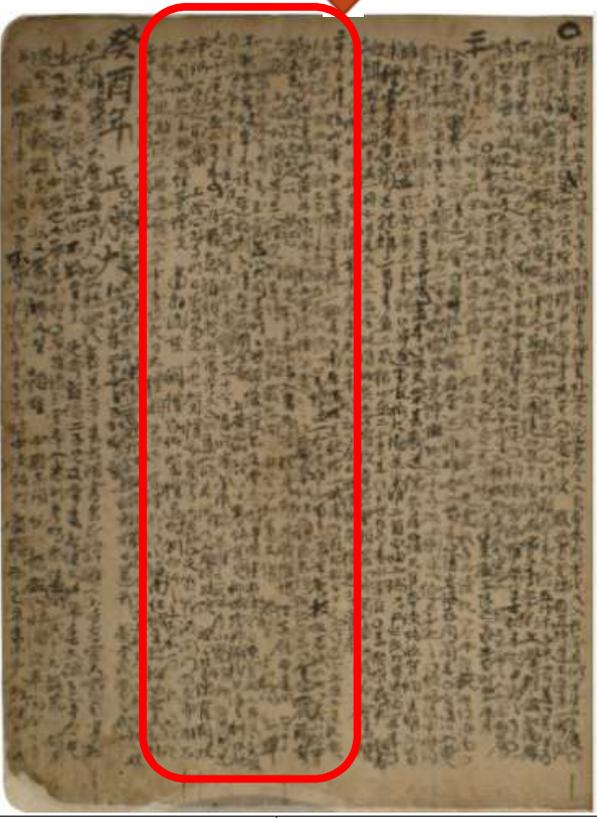
	
<p>十二月小 二十九日 ○以襦方衣.蕎米一斗.白米二斗.生雉一首 送于金興祖 報前日還我萱堂段裳之恩也</p>	<p>二十九日 以襦方衣,蕎米一斗,白米二斗,生雉一首 送于金興祖 報前日還我萱堂段裳之恩也 ○陳慰使朴啓賢,書狀官洪聖民入城 書啓 帝都別無奇別 今皇帝冲年即位 資質英明 時無過誤 朝野無事 人情似有喜悅之意 且近來 北虜喪其酋長 部落散落 願居塞內 邊將不許云</p>
『미암일기』 冊8	『미암선생집』 卷9

그림 IV-12 내용 추가 2

위 기사는 1572년(선조 5) 12월 29일 기사이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내용 가운데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 물건을 받은 것이 전 날의 은혜를 갚은 것이라는 부분만 수록되어있다. 내용이 추가된 부분은 陳慰使 朴啓賢과 書狀官 洪聖民이 명나라 수도에 도착하여 명나라 내부의 상황과 변방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한 내

용이다. 그림 <IV-1>과 <IV-2>처럼 일기의 본문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다르게 주석으로 기록하여 일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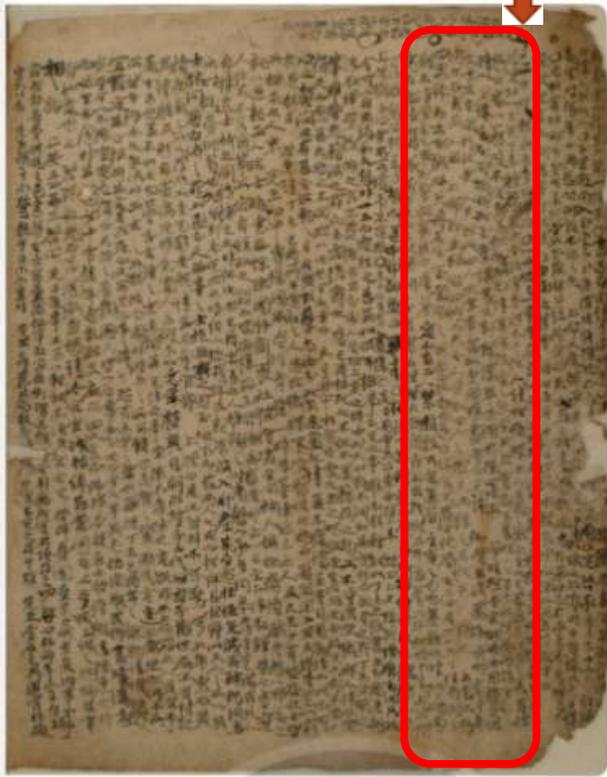
	
<p>十五日 …중략… ○歸舍 見羅士忱簡 則去四月二十六日 往尋務安縣石津里於乙串外曾祖崔進士 澤墓 定山直二人 禁樵牧 乃余通簡主宰 之力也 墓貌如昨 階砌尙完 石物依舊 感愴不已云云…중략… 『미암일기』 冊4</p>	<p>十五日 見羅士忱簡 則去四月二十六日 往尋務安石津里外曾祖崔進士墓 定山直 禁樵牧 墓貌如昨 階砌尙完 石物依舊 感愴不已 <u>崔進士諱澤 配陳氏 卽錦南之 考妣 而墓在石津里於乙串 先生嘗要羅 公往省之 仍使定山直守護 且致書于本 縣宰 助成其事 故羅公依示後裁答如是</u> 『미암선생집』 卷7</p>

그림 IV-13 내용 추가 3

위 기사는 1570년(선조 3) 5월 15일 기사이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내용은 羅士枕의 보낸 편지이다. 그러나 문집에는 나사침의 편지에 나오는 외증조부 최 진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과 나사침에게 편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의 사례들과 같이 내용이 추가된 부분은 일기에서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자료를 통해 그 날의 상황과 관련이 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하였으며, 기사의 부연설명은 주석을 통하여 내용을 보충해주는 편집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미암일기』가 문집인 『미암선생집』에 수록되는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방대한 양의 일기의 내용을 문집에 수록하다보니 날짜를 잘못 적거나 다른 날짜에 붙이는 편집과정상의 단순한 실수는 14건을 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수록내용의 편집은 하나의 글자나 문장의 수정 및 삭제로부터 시작된다. 글자의 수정은 대부분 유의어로 바뀌었고 문장은 저자의 기록을 후세에 읽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늘리거나 수록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글자나 문장의 수정 및 삭제를 통해 문집에 수록할 내용을 가다듬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에서 글자나 문장의 편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한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문집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같은 날에 수록하는 하나의 내용도 재구성하는 기사 21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구성의 우선순위는 관직생활→저술활동→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 순으로 편집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기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문집에 기록한 7건의 기사도 있었다. 이 경우는 해당 날짜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데 독립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추가하거나 주석으로 달아서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v. 결론

문집은 저자의 작품과 업적을 모아서 조상이나 스승을 선양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자료이며, 일기는 개인의 하루하루 일상을 시간의 순서대로 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이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문집총간』의 문집들 가운데 ‘일기’나 ‘일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록한 것을 대상으로 선별해보니 153종 247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집에 수록되는 일기를 개인일기의 유형을 참고하여 분류하면 관직생활과 관련된 정사일기, 여행에 대한 느낀 점을 적은 기행일기, 공부와 자신의 수양에 관련된 강학일기,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일기, 다른 나라로 업무를 떠나는 사행일기, 전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전쟁일기, 하루하루의 생활을 적은 생활일기로 나누었다. 정사일기와 기행일기가 많은 이유는 정사일기는 관직생활을 하면서 겪는 조정에서의 일들이 저자의 업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기록이기 때문이고, 기행일기는 산수를 둘러보며 풍경을 보고 느낀 점을 작품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생활일기는 개인일기의 유형에 비교하면 문집에 수록될 때 주제별로 선별되기 때문에 수록되는 양이 적다.

또한, 문집에 수록되는 방식은 기사발췌형식, 서술형식, 일기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기사발췌형식은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 문집 저자의 기록을 발췌하여 수록하는 것으로 문집에 수록되는 초기 방식이다. 서술형식은 기행일기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으로 날짜를 줄로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일기형식은 현재의 일기와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날짜, 내용 순으로 적으며, 하루의 기사가 끝나면 줄을 바꿔 날짜를 구분하는 형식이다.

수록되는 일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편집하여, 일기에 적힌 기록과는 어떠한 차이를 알기위하여 미암 유희춘의 일기인 『眉巖日記』와 그의 문집인 『眉巖先生集』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眉巖日記』는 유희춘이 은진에서 유배에서 풀려난 1567년 10월 1일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577년 5월 13일까지의 기록으로 모든 기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보충해주는 자료가 『眉巖先生集』이다.

『眉巖先生集』은 1612년 종성에서 詩稿 1권으로 간행되었다가 1689년 유정식이 9대손 유경심이 『미암일기』와 저술들을 모아 인출하지 못한 것을 이어서 중간본 20

卷 10冊을 간행하였으며, 1897년에 저자가 배향된 의암서원 사액 기사를 활자로 추보하여 최종적으로 21卷 10冊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일기는 5~14권의 「일기」와 15~18권의 경연에 참여한 내용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 「경연일기」 2가지로 수록되었다.

『眉巖先生集』에 수록된 『眉巖日記』의 내용은 유희춘의 관직생활과 저술활동, 개인적인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은 관직생활과 관련된 기사로 임금의 전교, 강론의 출석, 조보의 내용 등이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저술활동은 유희춘이 지은 시, 서책의 저술 및 교정 등이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록은 개인의 감정을 적은 내용, 날씨에 관한 내용, 자신의 이동경로 등이 수록되었으며 개인적인 내용은 한 달에 10여 건 정도의 내용이 수록될 정도로 적었다는 것은 문집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일기를 수록할 때 변화양상은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편집과정 상에 표기를 잘못하는 편집의 오류 14건의 기사가 있으며, 두 번째는 문집에 수록할 내용을 선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글자·문장의 수정 및 삭제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글자나 문장을 문집에 수록하는 내용에 맞게 유의어를 쓰거나 요약 및 설명 등이 행해졌다. 세 번째는 편집된 문장을 가지고 기사의 내용을 일기에 기록된 시간의 순서가 아닌 내용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편집하는 기사를 재구성하는 21건의 기사가 있었다. 하루의 기사에서도 내용을 수록하는 순서는 관직생활→저술활동→개인적인 기록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7건의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眉巖日記』와 『眉巖先生集』을 비교해보니 문집에 수록되는 내용은 문집의 조상 선양이라는 목적에 맞게 공적인 기사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사적인 기사를 배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문집에 수록되는 편집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原典

『眉巖日記』
『眉巖先生集』

저서

李海燮, 『眉巖日記草』 제 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6, 524~525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제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論著

김대현, 「『眉巖日記』에 나타난 退溪관련 기사에 대한 고찰」, 『퇴계논학집』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0.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_____,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432~439쪽.
박영호, 「朝鮮時代 仕宦日記 研究 - 朴來謙의 『西繡日記』를 中心으로 -」,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2010, 27쪽.
박재영, 고전적 정리의 측면에서 본 『한국문집총간』 편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민족문화』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260~263쪽.
박찬희, 「16세기 兩班 남성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20.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배수경, 「16세기 일기자료에 나타난 양반가의 가정생활 비교연구: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8.
裴賢淑, 「柳希春이 版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 송재용, 「『眉巖日記』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39-53쪽.
- _____, 「『眉巖日記』의 글쓰기 방식 일고찰」, 『東洋古典研究』30, 동양고전학회, 2008.
-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1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教育 및 科擧制度的 실상」, 『漢字 漢文教育』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서적 및 출판 관련 사항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87~110쪽
- _____,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24, 1997, 230쪽.
- 윤소정,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 이민주, 「복식 장만과 관리를 통한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이연순, 「『眉巖日記』의 저술배경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眉巖 柳希春의 日記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 _____,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인물평가 방식」, 『東洋古典研究』38, 동양고전학회, 2010.
- _____, 「『眉巖日記』에 나타난 ‘怒’-‘不遷怒’의 실천 지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44, 이화어문학회, 2018.
- 이왕기·김석희,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가옥의 건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연합논문집』18,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 이종숙, 「조선시대 개인일기 학술조사 종합고찰」,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4~26쪽.
-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제1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2쪽.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朝鮮時代史

學報』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鄭求福,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제19권, 1996, 8쪽.

정영민, 「眉巖 柳希春의 經筵活動 研究: 『眉巖日記』에 나타난 經筵活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9.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庭運營과 生活 :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

최유정, 「『미암일기』를 통해서 본 16세기 양반가의 사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7.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제34집, 대동한문학회, 2009.

최혜진, 「조선중기 士族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8.

韓永愚, 「『韓國文集叢刊』事業의 評價와 意義」, 『민족문화』18, 한국고전번역원, 1995, 55~64쪽.

한지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기류의 현황과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3』, 국립중앙도서관, 2011, 289~302쪽.

허경진,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의 토론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161~162쪽.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_____,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84쪽.

홍세영, 「『眉巖日記』의 의학 기록 연구」, 『民族文化』36, 한국고전번역원, 2011.

전자자료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A Original bibliography Study on 『Miam’ s Diary』 and 『 Miam’ s Anthology』

Gwan ho, Shin

Major in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aims to compare Miam Hee-chun, Yu’ s 《Miam’ s Diary》 and 《Miam’ s Anthology》 to identify the patterns of the diary included in the collection.

Anthology is public data that have purpose to exalt ancestors by collecting and recording author’ s works and achievements. The data included in the collection are prose and poetry that can show author’ s values and life.

On the other hand, diary is personal data that record individual’ s daily routines in chronological order. Diary, which shows then-living conditions closely was used as historical records for producing 2nd and 3rd data lik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Anthology. Among which, the diary utilized as historical records is observed most often in the collection. Diary has begun to be included in the collection as author’ s writing since the 16th century when it was widely popular that the noblemen left their own diary.

To look at the diarie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this study examined 『Korean Literary Collections』 covering the collections of our country.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diaries contained in chronological order titled as ‘diary’ or ‘daily record’ among the collec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154 kinds and 248 cases.

To classify the diarie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al diary, they can be subcategorized into political affairs diary, envoy diary, education diary, event diary, wartime diary, war diary, and living diary depending on the quantity contained. Political affairs diary and envoy diary are observed more often because both reveal government life as author's achievement and authors mostly record their feelings about landscape and scenery. Living diary is contained in less quantity because it is selected by theme when containing it in the collection.

Furthermore, the method how diary is contained in the Anthology is subclassified into excerption from articles style that author's articles are excerpted from others' writings, description style that articles are not sorted although date and content are written, and diary style that is similar to the present-day diary.

To see the patterns how diary was edited in the Anthology, this study compared the content and editing patterns in Hee-chun, Yu's 《Miam's Diary》 and 《Miam's Anthology》 that had a high value as historical materials and were included a lot in the collection.

The content of 《Miam's Diary》 contained in 《Miam's Anthology》 can be subclassified into Hee-chun, Yu's government life, writing activity, and personal record. Among which, the articles related to government life were contained a lot: for example, king's letter, attendance at sermon, and content of official gazette. Next, in case of writing activity, Hee-chun, Yu's poems and writing and correction of books are mostly contained. Finally, as personal histories, there were personal feelings related content, weather content, and one's moving route, and in case of personal content, at most ten contents were contained in a month.

To look at how diary content was changed when it wa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first, there were 14 articles due to editing error

in editing process. Second, it was found in most articles that the most basic work for selecting the content to be contained in the Anthology was letter-sentence modification and deletion. To be suited to the content to be contained in the Anthology, synonyms were used or summary and description were performed. Third, there were 21 articles related to reconstruction of edited letters and sentences. The reconstruction was based on the importance of content rather than chronological order recorded in the diary. The order of priority to include content was government life→ writing activity→ personal activity and even this was applied to one-day articles. Finally, there were 7 articles that added new contents without editing the content recorded in the diary.

As seen above, this study looked at 《Miam's Diary》 and 《Miam's Anthology》 through original text comparison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 between diary actually contained in the collection and general diary and discovered the patterns of content editing when compiling Anthology of works.

Based on this, further studies need to look at the patterns how the diaries contained in different collections were changed. This would enable us to find what was emphasized when including a diary in the Anthology of Joseon Dynasty and what content was excluded.

부록

『한국문집총간』 문집에 수록된 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유형
1	湖陰雜稿	鄭士龍	宜春日錄	1577	작품모음집
			新安日錄		
			龍灣日錄		
			關東日錄		
			儋接日錄		
			樞府日錄		
			敦寧日錄		
			南宮日錄		
雜記日錄					
2	梅月堂集	金時習	溟州日錄	1583	작품모음집
			關東日錄		
3	松齋集	李堦	陰崖日錄(李籽)	1584	발취 일기
4	嘯臯集	朴承任	家藏日記	1600	발취 일기
			眉巖日記(柳希春)		
			家藏日記		
			金中淸日錄		
			朴洵日錄		
5	圃隱集	鄭夢周	陰崖日錄(李籽)	1607	발취 일기
6	頤庵遺稿	宋寅	眉巖日記(柳希春)	1634	발취 일기
7	漢陰文稿	李德馨	李德悅日記	1634	발취 일기
			金時讓荷潭日記		
			金止男龍溪日記		
8	耻齋遺稿	洪仁祐	日錄鈔	1639	생활일기
9	鶴峯集	金誠一	堂后日記	1649	발취일기
10	龜窩集	金垸	春坊日記	1656	사환일기
11	愚伏集	鄭經世	經筵日記	1657	경연일기
12	潛谷遺稿	金堦	天聖日錄	1670	기행일기
			朝京日錄		연행일기
13	冲齋集	權櫟	日記	1671	생활일기
14	松江集	鄭澈	日記十五條	1674	생활일기
			白沙日記		발취 일기
15	澤堂集	李植	經筵日記	1674	사환일기
16	息庵遺稿	金錫胄	西行日錄	1680	연행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유형
17	忠烈公遺稿	吳達濟	丁丑政院日記	1697	발취 일기
			宜拙日錄		
18	定齋集	朴泰輔	政院日記	1702	사환일기
19	滄溪集	林泳	日錄	1708	독서일기
20	栢谷集	鄭岷壽	赴京日錄(壬辰)	1710	연행일기
21	谷雲集	金壽增	山中日記	1711	기행일기
			楓嶽日記		
22	魯西遺稿	尹宣舉	日記	1712	생활일기
			日記	1712	수학일기
			日記	1712	
23	晚悔集	權得己	北征日記(戊申)	1712	사환일기
24	鶴松集	全有亨	日記(鶴松日記)	1713	전쟁일기
25	土亭遺稿	李之菡	石潭日記	1720	발취 일기
			石潭日記		
			石潭日記		
			政院日記		
26	夢嚙集	南克寬	端居日記 (壬辰七月)	1723	독서일기
27	圃陰集	金昌緝	日錄	1726	수학일기
28	落西集	張晚	長湍赤壁船遊日記	1730	기행일기
29	三淵集	金昌翁	丹丘日記	1732	기행일기
			湖行日記		
			雪岳日記		
			嶺南日記		
			關西日記		
			北關日記		
			南遊日記		
			南征日記		
日錄	생활일기				
30	老峯集	閔鼎重	燕行日記	1734	연행일기
31	汾厓遺稿	申晷	南行日錄(辛亥)	1734	연행일기
			賓倭日錄		사환일기
32	四留齋集	李廷穉	行年日記(上, 下)	1736	생활일기
			附壬辰日記(李濬)		전쟁일기
33	睡谷集	李畚	日記	1739	묘소이장일기
34	黔澗集	趙靖	辰巳日錄	1740	전쟁일기
			附疏廳日記		상소청원일기
35	紫巖集	李民奭	柵中日錄	1741	사환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내용
36	重峰集	趙憲	朝天日記(上,中,下)	1748	연행일기
			北謫日記		유배일기
			眉巖日記		발취 일기
			許筠朝天日記		발취 일기
37	損庵集	趙根	尋白雲洞書院日記	1749	기행일기
			尋陶山書院日記		
38	月谷集	吳瑗	淸峽日記(壬寅)	1752	기행일기
			永峽日記(癸卯)		
			湖左日記(癸卯)		
			遊楓嶽日記		
38	月谷集	吳瑗	西遊日記(己酉)	1752	기행일기
			巡海日記(庚申)		사환일기
39	陰崖集	李紆	日錄	1754	생활일기
40	靜坐窩集	沈潮	道峯行日記	1756	기행일기
41	水村集	任墜	安陰縣光風樓改構 月日記	1760	기행일기
42	牧谷集	李箕鎭	日記	1767	묘소이장일 기
43	梨湖遺稿	金時鐸	泉上日記	1771	수학일기
44	開巖集	金宇宏	西行日記	1772년경	상소청원일 기
45	修巖集	柳衫	遊淸涼山日記(甲 寅九月)	1773	기행일기
			壬子日錄		장례일기
46	松溪集	李潛	日錄	1774	연행일기
47	海月集	黃汝一	銀槎日錄	1776	연행일기
48	東國李相國 集	李奎報	南行月日記	영조 연간	기행일기
49	霽軒集	沈定鎭	北峽日記	1786	기행일기
			附乙巳九月日記		서연일기
50	芑亭集	李德胄	公州山訟日記	1788	송사일기
51	老隱集	任適	東遊日記	1794	기행일기
52	李忠武公全 書	李舜臣	亂中日記	1795	생활일기
53	慕山遺稿	權憲	日錄	1800	수학일기
54	游軒集	丁煥	日記	1801	사환일기
55	月澗集	李堧	權侍日錄(李身圭)	1802	수학일기
56	市南集	俞榮	南漢日記	1805	전쟁일기
57	恒齋集	李嵩逸	愚谷朴處士日記	1808	수학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내용
58	厚庵集	權濂	錦水日錄	1812	수학일기
59	息山集	李萬敷	華陰日錄抄 蟾峯日錄抄	1813	생활일기
60	栗谷全書	李珥	經筵日記	1814	사환일기
			牛溪日記		발취 일기
			鄭松江澈日記		발취 일기
			松江日記		발취 일기
			牛溪日記		발취 일기
			牛溪日記		발취 일기
			松江日記		발취 일기
			松江日記		발취 일기
			松江日記		발취 일기
			柳眉巖希春日錄		발취 일기
			郭西浦說日錄		발취 일기
眉巖日錄	발취 일기				
眉巖日錄	발취 일기				
61	龜巖集	李元培	日錄	1820	생활일기
62	芝軒集	鄭士誠	壬辰日錄(萬曆壬辰)	1821	전쟁일기
63	逋軒集	權德秀	黃猿日記	1822	전쟁일기
64	聳漢集	孫起陽	日錄	1825	전쟁일기
65	可畦集	趙翊	辰巳日記	1826년 이후	전쟁일기
			皇華日記		연행일기
			公山日記		유배일기
66	德溪集	吳健	丁卯日記(注書時)	1829	사환일기
67	茅谿集	文緯	日錄中膽出	1829	생활일기
68	斗庵集	金若鍊	謁訥隱李先生日錄	1836	수학일기
69	頤齋集	李義肅	華嶽日記	1836	기행일기
70	樂齋集	徐思遠	東遊日錄	1843	기행일기
71	思菴集	朴淳	栗谷經筵日記	1857	발취 일기
72	白南集	金始鑣	出權小山正宅日錄	1858	발취 일기
73	治隱集	吉再	經筵日記(宋浚吉)	1858	발취 일기
			經筵日錄(權撥)		
74	懼庵集	李樹仁	筵對日記	1860	상소청원일기
75	溪西逸稿	成以性	燕行日記	1863	연행일기
76	三山集	柳正源	春坊日錄	1863	사환일기
77	南川集	權斗文	虎口日錄	1864	사환일기
78	龜亭遺稿	南在	南二星癸卯日錄	1869	발취 일기
79	遂初堂集	權忭	日記	1869	발취 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유형
80	石溪集	閔昱	丙辰以後日記	1871	생활일기
			重峯先生北謫日記		발취 일기
81	茅庵集	張瑱	己巳日記抄略	1873	상소청원일기
82	苔泉集	閔仁伯	討逆日記	1874	전쟁일기
			龍蛇日錄		전쟁일기
83	俛庵集	李堉	壬子日記(疏廳錄)	1876	상소청원일기
			丙寅日記(子秉鐸錄)		유배일기
84	平庵集	權正忱	書筵講義(附兩日)日錄	1878	사환일기
85	東山遺稿	趙晟漢	日錄	1881	사건일기
86	潭庭遺稿	金鑪	北遷日錄	1882	유배일기
87	荷居集	梁憲洙	(附)出戰日記	1888	사환일기
88	野村集	孫萬雄	燕行日錄	1890	연행일기
89	孤潭逸稿	李純仁	經筵日記(栗谷)	1891	발취 일기
90	健齋集	金千鎰	柳眉巖經筵日記	1893	발취 일기
			李栗谷經筵日記		
91	海隱遺稿	姜必孝	尼門日記	1895	수학일기
92	好古窩集	柳徽文	杜陵日記	1896	수학일기
93	眉巖集	柳希春	日記	1897	생활일기
			經筵日記		경연일기
94	自濡軒集	李萬白	西行日記	1897	기행일기
95	泰村集	高尚顏	忠武公亂中日記	1898	발취 일기
96	西浦集	郭說	西浦日錄	1900	작품 모음집
97	順菴集	安鼎福	壬辰桂坊日記	1900	서연일기
			甲午桂坊日記		서연일기
98	靑莊館全書	李德懋	觀讀日記	1900	독서일기
99	有懷堂集	權以鎭	燕行日記	19세기	연행일기
100	宋子大全	宋時烈	癸丑日記	1901	생활일기
101	德峯集	李鎭宅	北征日記	1902	유배일기
			日錄		사환일기
102	守宗齋集	宋達洙	南遊日記	1902	기행일기
103	照菴集	鄭海弼	石村日記	1903	수학일기
104	愼窩集	鄭在賢	潭上日記	1903년경	수학일기
105	甲峰遺稿	金宇杭	老湖日記	1904	유배일기
			西謫日記		
106	善養亭集	丁希孟	日記	1905	전쟁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유형
107	守窩集	白慶楷	滄桑日記	1906	기행일기
			北行日記		유배일기
108	重菴集	金平默	智島日記辛巳十月 (朴長吉·李在成)	1906	수학일기
109	塘村集	黃暉	倡義日記	1907	전쟁일기
			北關日記		사환일기
110	習靜集	宋邦祚	遊香山日記	1907	기행일기
111	知足堂集	權萬斗	碧溪戊申日錄	1907	사환일기
112	龍耳窩集	權埰	請狀碣文日記	1909	정려청원일기
			京行日錄		
			丁酉五月京行日錄		
			東征日記		증직일기
113	臨齋集	徐贊奎	就正日錄	1909	수학일기
114	夢梧集	金鍾秀	春宮侍講日記	1910	경연일기
115	景齋集	禹成圭	同宋淵齋遊覽日錄	1911	수학일기
116	感樹齋集	朴汝樑	頭流山日錄	1914	기행일기
			從士日記		사환일기
117	晚醒集	朴致馥	松行日記	1925	기행일기
118	大溪集	李承熙	北漢日記	1927	기행일기
			江華日記		
			伽倻日記		
			疏行日記		상소청원일기
119	晚悟集	申達道	江都日錄(丁卯)	1927	전쟁일기
120	白水集	楊應秀	築場日記	1928	장례일기
121	月臯集	趙性家	沙上日記	1929	수학일기
122	寅齋集	申槩	政院日記(世宗)	1929	발취 일기
123	灘村遺稿	權綵	魯門日記	1929	수학일기
			石院日記		
			明村日記		
124	燕巖集	朴趾源	熱河日記	1932	연행일기
125	樗村遺稿	沈埵	日記	1938	사건일기
126	湛軒書	洪大容	桂坊日記	1939	사환일기
127	太乙菴集	申國賓	西行日記(乙卯)	1944	기행일기
128	性潭集	宋煥箕	東遊日記	고종 연간	기행일기
129	可庵遺稿	金龜柱	看書日錄	미상	독서일기
			立朝日錄		사환일기
			錦城日錄		유배일기
130	儉齋集	金樛	北行日記	미상	사환일기

번호	문집명	저자	일기명	간행년도	유형
131	觀復齋遺稿	金構	東行日記	미상	기행일기
132	冠巖全書	洪敬謨	侍講日記(經筵日記)	미상	경연일기
133	廣瀨集	李野淳	沙禽洞立石日記	미상	기행일기
134	晩全集	洪可臣	李月川延穉日記	미상	발취 일기
135	晩翠亭遺稿	朴永錫	東遊錄日記	미상	기행일기
136	無住逸稿	洪鎬	朝天日記(上,下)	미상	연행일기
137	白石遺稿	柳楫	宋睡翁(甲祚)日記(抄)	미상	발취 일기
138	雪海遺稿	李晩榮	謫明川時日記	미상	유배일기
139	省菴遺稿	金孝元	頭陀山日記	미상	사환일기
140	雙溪遺稿	李福源	雪獄往還日記	미상	기행일기
141	岳麓集	許箴	荷潭日記	미상	발취 일기
			壬辰日記(李少陵)		
142	陽圓遺集	申箕善	丙丁日記	미상	국청일기
			奉使日記		의병일기
143	陽坡遺稿	鄭太和	日記	미상	사건일기
144	與猶堂全書	丁若鏞	汕行日記	미상	기행일기
145	旅軒集	張顯光	言行日錄略(趙遵道)	미상	발취 일기
146	研經齋全集	成海應	車漢日記	미상	기행일기
			瀋陽日記		
147	雲溪漫稿	金鍾正	東征日錄	미상	사환일기
			瀋陽日錄		
148	濟庵集	金宗燮	辛亥考終日錄(金慶進)	미상	생활일기
149	竹所集	金光煜	海西日記(辛巳)	미상	사환일기
150	止庵遺稿	李喆輔	書筵日記	미상	서연일기
			丁巳燕行日記		연행일기
151	草堂集	許曄	經筵日記	미상	발취 일기
			石潭日記		
			眉巖集日記		
			恥齋日錄		
152	鶴塘遺稿	趙尙綱	日記	미상	사환일기
153	鶴巖集	趙文命	燕行日記	미상	연행일기
154	華齋集	黃翼再	戊申日記	미상	사환일기
			庚戌日記		유배일기
			編管日記		유배일기